

INVITATION
TO THE
ARTS

SEPTEMBER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9 vol.297



Cover Story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체임버오케스트라

세계의 공연장

콜론극장(Teatro Colon)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야기

축제속으로 고고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다니엘 호프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BUSAN CHAMBER

2016 금난새와 함께하는 부산챔버 뮤직 페스티벌

MUSIC FESTIVAL

예술감독 및 지휘 **금난새**

듀오 케미 (Duo KeMi) Guitar Jacob Kellermann Violin Daniel Migdal
트리오 제이드 (Trio Jade) Piano 이효주 Violin 김다미 Cello 이정란
Camerata BS Piano 정다슬 Clarinet 백양지 Flute 서선미리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 미술관

9월 8일(목) - 9일(금) 7:30pm

9월 9일(금) 2:00pm

9월 10일(토) 2:00pm

제45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Ⅳ

BEETHOVEN SYMPHONY SERIES IV

2016. 9. 27(화) 오후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봉래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다니엘 S 김
(BSO부지휘자)



"Klappbrücke(도개교)
in Yeongdo (2016)"
작곡 박 주 희
(경성대 외래교수)

Program

L. v. Beethoven – Symphony No.4 in B-flat Major, Op.60

L. v.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Juhee Park – Klappbrücke(도개교) in Yeongdo (2016)

주최 영도구(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문화재단 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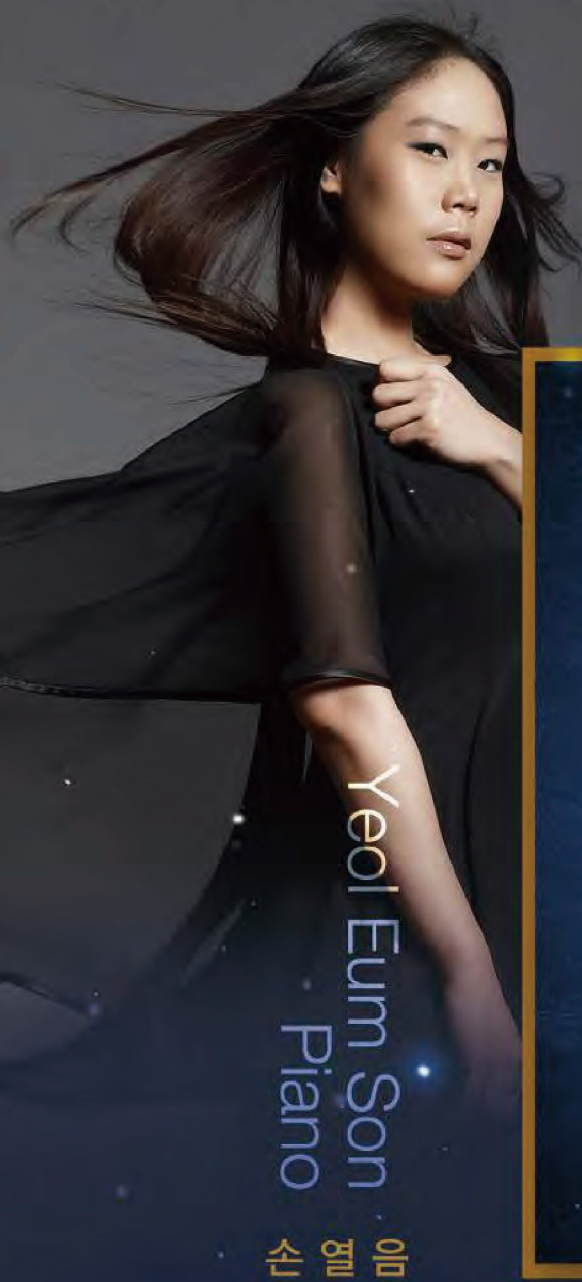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0,000원 / 회원 5,000원 (만 7세 이상 입장가) 예매 및 문의 051-419-5571~4 <http://culture.yeongdo.go.kr>

고연정 이사주담체 육성사업 본 공연은 2016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The 54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2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Yeol Eum Son
Piano
손열음

Violin & Piano

饗宴

향연



Sayaka Shoji
Violin
쇼지 사야카

2016. 09. 27 [화]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복권기금
문화의날
www.lotteryarts.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일보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CONTENTS

CULTURAL STORY



06 커버스토리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08 9월 공연 캘린더

10 반갑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초대 대표이사 박인건



12 세계의 공연장
콜론극장(Teatro Colon)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야기



16 축제속으로 고고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18 테마가 있는 여행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여행

BOARDS INSIDE



26 프리뷰

34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9월호 통권 297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8월 25일 인쇄처 휴먼디앤피 051 807 5100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영국 유명 '옵서버'紙로부터 '자클린 뒤 프레 이후 가장 매력적인 현악 주자'라는 호평을 받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가 부산을 찾는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는 첫날인 1일, 유럽 3대 챔버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Zürich Kammer Orchestre)에 이어 2일에는 유럽 평단으로부터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연주자'라는 극찬을 받은 피아니스트 박종화, 연주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균형있게 소화해 내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실내악 무대를 꾸민다.

거장 로저 노링턴 경의 뒤를 이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악단체인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다니엘 호프는 세계적인 음악가 다니엘 바렌보임과 플라시도 도밍고, 세계적인 명성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수상자를 배출한 'European Cultural Prize' 2015년 수상자로, 클래식 음악계에 가장 핫한 연주자 중 한 명이다. 명교육자로 유명한 자카르 브론을 사사한 다니엘 호프는 그동안 쿠르트 마주어, 쾨트 나가노,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과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들뿐 아니라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파리 심포니, 런던 심포니, LA 필하모닉, 도쿄 심포니 등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과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다니엘 호프는 지금까지 발매된 음반으로 Deutsche Schallplattenpreis, Diapason d'Or of the Year, Edison Classical Award, Prix Caecilia 등 유명 레코드상을 수상했으며, Chamber Orchestra of Europe과 함께한 그의 앨범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8중주'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앨범'에, Alban Berg 협주곡은 그라모폰지가 선정한 '최고의 연주음반'에 뽑히기도 했다. 막스 리히터의 비발디 '사계'를 재구성한 음반은 22개국에서 판매 1위, 130,000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최근 가장 성공적인 클래식 음반으로 꼽혔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0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3만원, S 2만원(1일) / R 2만원, S 1만원(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부산문화회관(607-6042, 6065)

1일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첫날인 1일, 다니엘 호프는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쇼스타코비치 '현과 트럼펫,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 1번 작품 35', 그리고 2012년 클래식계에 충격을 던져준 막스 리히터 편곡의 비발디 '사계'를 들려준다. 다니엘 호프와 무대에 서는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945년 에드몽 드 스투츠(Edmond de Stoutz)에 의해 창립된 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뛰어난 해석을 하는 오케스트라로 손꼽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장 로저 노링턴 경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16/2017시즌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로 지휘자가 아닌 기악연주자인 다니엘 호프를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선임해 더욱더 선도적이며 새로운 음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쇼스타코비치 '현과 트럼펫,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번 작품 35'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트럼펫터 브루스 배리가 협연한다. 박종화는 200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 상 수상, 1998년 루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산타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 특별상과 청중상을 동시에 받았으며 특히 199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는 최연소 입상(5위) 및 최우수 연주자상 외에도 표트르 안드리센이 수여하는 비평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브루스 배리는 Chestnut Brass Company 창단 멤버로 그레미상을 수상한 바 있다.



2일
다니엘 호프,
박종화,이경선,
안톤 스프론크

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이경선, 피아니스트 박종화, 첼리스트 안톤 스프론크의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 7', 드보르작 '2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3중주 다장조 작품 74', '피아노 5중주 가장조 제2번 작품 81'을 들려준다.

2014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은 1991년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 콩쿠르 1위 입상을 비롯해 1992년 레오폴드 모짜르트 국제콩쿠르, 1993년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1994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등에서 연속적으로 입상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세종솔로리스트, 금호현악사중주단 멤버로 전 세계에 '문화한국'을 알린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경선은 현재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전실내악축제와 서울 비르투오지 그룹의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함께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 7'을 들려줄 첼리스트 안톤 스프론크는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2014 National Cello Competition(Cello Biennale Amsterdam 2014) 우승(청중상, 작품해석상), 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music talents 우승(2003, 2009), Princes Christina Competition 우승 및 청중상, X Witold Lutoslawski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명예상 등을 수상했으며, 네덜란드 콘세르트허바우,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다수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09

2016 SEPTEMBER

SUN

MON

TUE

전시실

제16회 한국문인화대전 - 대전시실

8월 31일(수)-9월 3일(토)

문의 : 최연성(010-6229-3698)

*시상식 9월 3일(토) 오후 2:00 국제회의장

2016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

작가展 - 대전시실

9월 5일(월)-9월 11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부산서예협회 초대작가전 - 대전시실

9월 24일(토)-9월 27일(화)

문의 : 윤종철(010-9753-0718)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작품전

- 대전시실

9월 28일(수)-10월 4일(화)

문의 : 최영진(010-6684-3450)

4

대 제34회 전국 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10:00

KBS부산(620-7327)

중 제28주년 부산새싹발레단 정기공연 '발레 리나를 꿈꾸며' 16:00

균일 1만원/부산새싹발레단(865-2277)

5

대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천 년의 소리 - 기억의 풍경' 19:30

3만원·1만원

부산가야금연주단(010-8545-4816)

6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전문단체 타로'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중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Ⅷ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19:30

5만원·3만원·2만원/(사)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070-7727-0188)

소 데카코르데 연주회 19:30

초대/옥석대(010-6313-1718)

11

12

13

18

19

20

대 리스트 서거 130주년 기념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리스트의 여정'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순회공연

'가을의 소리' 19:30

무료/민정민(010-6426-8685)

25

26

27

대 멜로매니아 제2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멜로매니아(010-9554-0115)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01, 3148)

소 유한승 재즈 기타 콘서트 16:00

유한승(010-4938-9618)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십시오.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1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 '콘체르토 컴파티션 갈라콘서트' 19:30 균일 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2 중 제3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3 대 2016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 'Closing Concert' 17:0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중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18:00 균일 2만원/(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070-8883-8004)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7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2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8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제3회 부산 챔버뮤직페스티벌'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소 부산-순천시립극단 교류공연 '뮤지컬 퍼펙트 맨' 15:00 무료/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9 대 제9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베를린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20만원·15만원·10만원·5만원 KNN(850-9568, 9566)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제3회 부산 챔버뮤직페스티벌'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10 대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한가죽 음악회' 17:00 무료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010-4565-0178)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6 제3회 부산 챔버뮤직페스티벌' 14:0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Brass Quintet'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4	15	16	17
21	22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 소 제2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반주전 공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홍지혜(010-9940-1201)	23	24 소 토요일상설무대 '후 브라스콰이어'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28	29 대 부산시립예술단 3개 단체 합동공연 '국악 & 합창의 만남 - 한국민요기행'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607-3108, 3142)	30 대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가족, 함께하는 행복코러스' 19:30 초대/부산코러스합창단(010-2551-7542) 소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론더풀 투나잇' 20: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0/1 대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19:30 3만원·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소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론더풀 투나잇' 17: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017년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재)부산문화회관 초대 대표이사 **박인건**



B U S A N
CULTURAL CENTER
P R E S I D E N T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문화회관 초대 대표이사에 박인건 전 KBS교향악단 사장이 선임됐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KBS교향악단 사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충무아트홀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공연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행정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충무아트홀과 KBS교향악단에서는 사장으로 재임 시 재단법인화를 조기에 정착시켰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재임 시절에는 예술단을 위탁 운영하는 등 예술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왔다. 출범 4개월을 앞두고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느라 하루하루가 분주한 박인건 대표이사를 만났다.

“지금껏 해왔던 문화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에 가는 시민들의 관심과 큰 기대도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당장 재단법인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전국의 내노라 하는 공연장의 법인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면서 재단법인이 가지는 ‘허와 실’을 모두 경험했다는 박인건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예술의 독립성과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재단법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가까운 시일 내 새로운 부산문화회관을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술단이나 공연장에 재투자되면서 우수 공연 유치 등을 통해 다시금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예술의전당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이 재정자립도를 안정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산문화회관이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박인건 대표이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확보에 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내에 전문적인 공연기획팀을 구성해 장르별, 계층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절별, 특정일 등 시의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브런치콘서트, 정오콘서트 등 저녁 공연이라는 일반적인 매커니즘을 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생각이다. 예술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공연을 기획하고 국내 우수 문화회관과 협약을 맺어 우수공연을 교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충성회원을 키울 수 있는 회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금의 회원 수를 두 배 이상 증원시키는가 하면 후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관객확보에 보다 신경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부산문화회관과 연계된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টে를 구상해 수익사업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예정이다.

평소 “그릇을 깨더라도 설거지를 자주 해라”는 소리를 자주 직원들에게 한다는 박인건 대표이사.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그는 그 큰 변화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3년 내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다음으로 부산문화회관’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다”는 박인건 대표이사. 그가 그리는 새로운 부산문화회관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통해 인생의 맛, 삶의 심포를 누릴 수 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부산문화회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콜론극장 TEATRO COLON 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야기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이 남미에?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는 한국의 9월은 가을의 문턱에 이르는 계절이지만,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9월은 봄맞이가 한참이다. 백화점은 화사해진 봄옷으로 쇼윈도가 꾸며져 있고 거리의 사람들 옷차림 역시 한결 가볍고 경쾌하다.

계절뿐 아니라 낮과 밤 역시 정반대이다. 유럽이나 북미를 여행하면서 더하고 빠고 복잡한 시차계산의 경험이 한 번 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오히려 손쉽다. 정확히 12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아시아와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대륙 남미.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

우선 직선으로 20,000km에 육박하는 거리에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어떤 항공사도 직항노선이 없다. 이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서가 아니다. 보잉 777이나 에어버스 380 같은 대형기종도 한번의 주유로는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미를 경유하든지 유럽을 경유하던지 한 차례 이상 환승을 해야 한다. 보통 부산에서 출발하면 미국 달라스를 경유하는 비행편이 수월하다. 그럼에도 자그만치 비행시간만 25시간, 중간에 환승을 위해 대기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30시간이 훌쩍 넘는다. 왕복으로 따지면 만 나흘이 소요되는 셈이다.

공연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왜 부에노스아이레스일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빈 슈타츠퇴, 밀라노 라스칼라에 버금가는 최고의 오페라극장이 이 도시에 있다고 하면 다소 의아해할 것이다. 하지만 객석 수 2,500석(입석을 포함하면 최대 3,000명을 수용하는)의 세계 최대의 오페라 극장인 콜론극장(Teatro Colón)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로(大路)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리고 보니 넓이만 140m에 이르는 대로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가끔 규모만 놓고 최고를 말하는 건축물들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의 건축물일 경우가 많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허세를 부린 독재 권력자가 건축주인 셈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부국이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콜론극장 내부

콜론극장은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국가 부도사태에 이를 만큼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2년 전 방문당시는 대달러 환율이 1\$에 6페소였던 게 최근은 10페소에 육박한다. 게다가 플로리다 거리의 Cambio라 불리는 암거래상을 통해 환전하면 1\$에 15페소 이상 바꿀 수도 있다. 이미 제도권 경제는 무너진지 오래다. 폰리를 따지는 환차익이 무려 5할에 육박하니 말을 다 한 셈이다.

다시 콜론극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1889년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완공까지 19년이 걸리는 동안 이탈리아인 건축가 프란체스코 탐부리니와 비토리오 메아노 그리고 벨기에인 쥘 도르말이 바톤을 이어가며 설계했다. 그리고 1908년 오페라 '아이다(AIDA)'를 개막작으로 그 화려한 문을 열었다.

14/15 시즌 콜론극장에서 만난 오페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그랑 오페라 '돈 카를로(Don Carlo)'였다. 프랑스의 공주 엘리자베트(Elisabeth de Valois, 1545-1568)는 스페인의 왕자 돈 카를로(Don Carlos, 1545-1568)의 약혼녀였으나 열네 살 때 그녀가 실제로 결혼했던 인물은 약혼자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펠리페 2세(Felipe II, 1527-1598)였다. 왕세자가 약혼녀를 아버지에게 빼앗겼다는 그 비극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쓰리게 했고, 이 역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많은 소설, 희곡, 영화 등이 탄생했다. 막장 이야기가 오페라의 소재로는 제격인 셈이다. 역사 속에서 펠리페 2세는 무려 4번의 결혼을 한다. 첫 아내는 포르투갈의 공주 마리아, 바로 돈 카를로의 생모이다. 이후 영국의 메리 1세 그



01

- 01 엘아테네오 서점
- 02 키르츠네르 문화센터
- 03 코리엔테스 대로
- 04 라보카
- 05 거리의 탱고공연



02

리고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 끝으로 합스부르크의 안나까지 ... 정치적 이유로 유럽 여러 왕가와의 정략적인 결혼, 왕노릇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화 '사도(思悼)'와 많이 닮아있다. 왕인 아버지와 왕세자인 카를로의 대립, 그리고 고뇌하는 아버지, 이어서 아들의 죽음. 오페라에서는 러브스토리가 픽션으로 가미되어 있지만, 영락없는 스페인판 사도세자 이야기이다.

그리고 보니 처음 콜론극장에서 만난 오페라 역시 '가면무도회(Un ballo in maschera)', 유독 베르디의 오페라가 많이 공연된다. 물론 이는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태리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도시이기에 영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최근 경제적인 여파로 예전과 같이 활발히 시즌별로 작품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태리 남부의 몇몇 오페라극장과 같이 분기별로 한두 작품을 올리는 상황에 이르러서 공연날짜를 맞추어 가지 않으면 손쉽게 오페라공연을 접하기 어렵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픈 곳이 있는데, 흔히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 일컫는 '엘 아테네오(El Ateneo)'이다. 과거 오페라하우스였던 공간을 서점으로 리노베이션 하였는데 그렇기에 그 공간이 아주 이색적인 동시에 매력적이다. 객석은 책장과 고객의 이동동선으로, 무대는 카페로 활용하고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꼭 한 번씩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다운타운인 코리엔테스(Av. Corrientes)를 지나다보면 한 집 걸러 서점이 있음에 놀라게 되는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같은 소설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력은 이런 문화적인 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공식처럼 찾는 곳이 오페라극장과 더불어 콘서트홀이다. 도시를 대표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필하모닉은 2년 전 리노베이션한 '키르츠네르 문화센터(Centro Cultural Kirchner)'의 오케스트라 전용홀 '발레나 아줄(La Ballenea Azul, 직역하면 '푸른그래'라는 뜻)'에 상주해 있다. 마침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 심포니오케스트라(Oquestra Sinfonica de Salta)의 연주회가 있어서 이 홀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의 로비를 리노베이션 해서 만든 공연장이 이색적이었다.

끝으로 도시를 이야기 하면서 탱고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다. 혹자는 탱고가 이웃 우루과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보카 지구(La BOCA)에서 이 매력적인 춤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다. 과거 부두였던 라보카에서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과 선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한 게 지금의 탱고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다. 또 유곽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추는 춤이 기원이라는 말도 있기에 실제 처음은 남남 커플이 추는 춤이었다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곳곳에 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탱고 레슨을 하는 곳이 많지만, 전문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이는 밀롱가에 가면 현지인들의 탱고문화를 직접 접해볼 수도 있다.

팔레르모 지구의 라비루타(La Viruta)와 살롱 칸닌(Salon Canning), 첸트로에 위치한 컨피테리아 이데알(Confiteria Ideal) 그리고 코리엔테스 거리에 위치한 엘베소(El Beso)가 현지 탱고로스(Tangueros, 탱고를 추는 사람)들이 찾는 유명 클럽들이다. 만약 탱고를 추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 찾을 기회가 있다면 멋진 탱고밴드의 라이브 음악과 열기 넘치는 밀롱가를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탱고 전문댄서의 공연을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푸에르토 마데로 지구에 위치한 호텔 파에나(Faena)의 '로호 탱고 쇼(Rojo Tango Show)'를 추천한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필립 패트릭 스타크(Philippe Patrick Starck)이 디자인한 이 호텔은 벨에포크 시대의 퇴폐미를 컨셉으로 만든 세계적인 호텔이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데 매일 저녁 최고의 탱고쇼가 열리며, 한때 뉴욕에서 명성을 날렸던 클라우디오 비샤그라(Claudio Villagra)가 무대에 오른다. 그는 십여 년 전 한국을 찾았던 '포에버 탱고(Forever Tango)' 공연 당시 내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소리와 사람, 자연이 어우러지는



9월 29일(목)~10월 3일(월)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063-232-8398, www.sorifestival.com

우리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월드뮤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특정 음악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무대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세계음악 예술제이다.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영국의 저명한 월드뮤직 전문지인 '송라인즈(Songlines)'가 선정한 '국제 페스티벌 베스트 25'에 4년 연속 선정(2012~2015)되면서 전북의 축제, 한국의 축제를 넘어 세계의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9일 전주 한국소리 문화의전당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찾아온 아티스트들이 축제가 열리는 5일 동안 총 165여 회의 공연을 펼친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폐막 공연과 더블빌(동시공연), 월드뮤직빅파티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은 'Sori from the world'라는 주제로 한국, 폴란드, 중국, 티벳, 프랑스, 일본, 인도, 미국, 뉴질랜드 등 15개국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다국적 공연이다. 모든 연주팀이 동시에 한 무대에 올라 각 나라의 개별음악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변주곡을 연주하듯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자들만 해도 약 70여 명으로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관객들을 압도한다. 개막공연은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3일 오후 7시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펼쳐지는 폐막공연 '비트 인스퍼레이션'은 지난해 폭발적인 성원을 받았던 2015 폐막공연 '농악 빅 파티'를 리메이크한 무대로, 전국 각지의 젊은 타악 연주자들의 정열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대표적인 기획공연인 '더블빌(동시공연)'도 눈길을 끈다. 첫 번째 더블빌 무대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소리인 '가곡'과 '무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성악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정가'의 명인 조순자 선생과 역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제르바이잔의 성악 '무감'의 신에 어르주 알리에바의 고도의 테크닉과 신비로운 음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다른 더블빌 무대는 전북작곡가협회와 터키의 안스말러 앙상블이 준비하는 무대로, 이질적인 멜로디와 음색에서 '공감'의 언어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10월 1일과 3일 오후 2시 명인홀에서 각각 열린다.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월드뮤직빅파티는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온다. 10월 1일 오후 7시 30분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월드뮤직빅파티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보적 음악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이자 월드뮤지션 양방언, 프랑스 켈틱음악의 선두주자 안-평수 케메네르 파르텃, 헝가리 집시음악밴드 로명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국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월드뮤직그룹 들소리와 유럽의 대표적인 월드뮤직그룹 로조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명인명창의 소리로 만나는 판소리 프로그램으로, 중견 소리꾼들의 안정적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명인 명창들의 쇼맨십과 연기력을 확대한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올해부터 공모와 선발을 통해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실력파 소리꾼이 참여하면서 차세대 소리꾼의 패기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판소리 다섯바탕'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악당에서,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오송제 편백나무숲에서 펼쳐진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전통기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은 전북지역 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일 오후 7시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CBS별빛콘서트



- ▲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공연 '농악 빅 파티'
- ◀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식 '소리 빅 파티'
- ▼ 판소리 연웨이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여행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떠나는 189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8월 테마여행지는 시원한 바다 풍광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남해 다랭이마을



남해유배문학관

세 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유배문학'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조성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남해유배문학관. 조선시대 제주, 거제 등과 더불어 남쪽의 대표 유배지로 유명했던 남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해를 거쳐간 유배객만 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구운몽'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 외에도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후송 유의양, 조선 전기 4대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자암 김구, 약천 남구만 등 당시 이름을 날린 여러 문장가들이 이곳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이들은 권력도 부귀도 모두 빼앗긴 삶 속에서도 '구운몽', '화천별곡', '사씨남정기', '남해문견록' 등 빛나는 유배문학 작품을 남기면서, 이들 작품을 통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학과 예술의 꽃을 피웠던 선조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다.

남해유배문학관은 유배문학실과 유배체험실, 남해유배문학실, 향토역사실 등 다양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숲과 7편의 유배시로 시작되는 유배문학실은 유배를 포함한 옛날 5대 형벌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유럽의 유배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유배객들에 대한 자료와 유배문학의 역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유배체험실에서는 유형의 길을 떠나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노정을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함거에 갇힌 채 직접 3D입체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남해유배문학관은 남해로 유배온 김구, 남구만, 김만중, 이이명, 류의양, 김용 등 문인 6인의 생애와 그들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김만중의 '구운몽'을 애니메이션으로 즐길 수 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남해유배문학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남해 다랭이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다랭이'는 협소한 농지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이 마을 사람들은 '삿갓배

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곳 다랭이마을은 바닷가이지만 해안절벽에 가파른 지형을 끼고 있어 배를 정박하기도 어려운 곳이라 일찍부터 주위의 척박한 산비탈을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논을 세어보니 한 배미(이곳에서 논을 세는 단위)가 모자라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샷갓을 들었더니 그 밑에 논 한배미가 있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랭이마을에는 작은 크기의 샷갓배미에서 300명이 족히 넘는 큰 논까지 다양한 계단식 논이 자리하고 있다. 다랭이마을의 계단식 논은 마을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발자취에 세월이 더해져 100여 층의 대규모로 형성되어 앞으로 펼쳐진 바다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2012년 CNN 선정 대한민국 관광명소 3위에 랭크될 만큼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다랭이마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회 주민들이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마을 두레방에서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여름바다 체험에 나섰다. 구불구불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가자 오늘 체험장소인 몽돌 해변이 나타났다. 이날 첫 체험은 멍게를 이용한 반지래기 잡기. 정식 이름이 미끈망독인 반지래기는 미꾸라지처럼 생긴 작은 물고기로, 잘린 멍게를 바닷물이 들어오는 몽돌 사이에 대고 있으면 그 속에 숨어있던 반지래기가 멍게를 물고 그때 타이밍을 맞춰 멍게를 들어 올리면 멍게에 달려 올라온 반지래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생각보다 쉽게 잡히는 반지래기에 아이들보

다 어른들이 더 신나한다.

이어지는 체험은 바다에서 뗏목 및 고무보트 타기.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갖춰 입은 회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뗏목과 고무보트에 착석했다. 마을주민들이 뗏목의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자 몇몇 회원들은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뗏목을 잡고 본격적인 해수욕을 즐긴다. 이에 질세라 고무보트에 앉은 회원들도 힘을 합쳐 노를 저어 바다로 간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유유히 떠있는 뗏목과 고무보트, 그리고 함께한 정기회원 가족들의 모습이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한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도 쉽게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하던 회원들은 부산으로의 출발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로 향했다.

엄청난 폭염 속에서도 시원한 바다와 수려한 자연, 그리고 정겨운 가족, 친구들이 함께 있어 그래도 마냥 즐거웠던 8월 테마여행, 그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만큼이나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10월 14일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고령 가얏고마을에서 즐기는 가야금 연주 체험과 우륵박물관, 대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 등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우륵박물관 탐방
- 10:30 가얏고마을 가야금 연주체험
- 12:00 중식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대가야 박물관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11월 11일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 약 6km 길이에 달하는 문화생태탐방 명소 '소리길'과 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탐방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해인사 도착, 해인사 탐방
- 12:00 중식(해인사), 자유시간
- 13:00 생태해설사와 소리길 탐방
- 15:00 대장경테마파크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09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 | |
|----------------|----------------|
| 곽민서(부산진구 복지로) | 전은경(영도구 동삼서로) |
| 배경희(동래구 안남로) | 조민희(남구 우암로) |
| 양미숙(부산진구 백양대로) | 진영규(양산시 고향의봄로) |
| 유수지(연제구 과정로) | 최윤주(수영구 수영구) |
| 유해인(금정구 개좌로) | 최정화(남구 우암로) |

● 기존 회원

- | | |
|-----------------|-----------------|
| 김미숙(부산진구 백양관문로) | 오희경(남구 유엔로) |
|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 윤지선(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김신숙(사하구 마하로) | 이혜수(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 박미영(부산진구 동천로) | 임지영(남구 황령대로) |
| 박종태(연제구 법원북로) | 조현숙(동래구 금강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작, 연출 위성신

죽음을 바라보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시선

뮤지컬 퍼펙트 맨 Perfect Man

2016. 9. 8(목)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순천시 주관  부산시립극단  순천시립극단

입장권 무료 (1인 4매 / 전화예매)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607-3107(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가을, 브람스

autumn,
Brah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2회 정기연주회

지휘 지중배

Program




바그너 |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전주곡
R.Wagner | Prelude to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M.Bruch | Violin Concerto No. 1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J.Brahms | Symphony No. 2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2016. 9. 22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해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고쳐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할인(전화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연회비 5000원 이상)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명 이상)할인 10%~30% 및 학생단체(0.000원) ▶ 전화문의

부산시립합창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예술단 3개단체 합동공연

국악 & 합창의 만남 한국 민요기행

프로그램

- | 1부 | 1. 수로부인 2. 영남들노래 모음곡 3.애 아리랑 4.가시버서 사랑 5.아름다운 나라
- | 2부 | 6. 부산맥 아리랑 7. 신고신타령, 춤추는 춘향이, 울산아가씨
- 8. 아리랑 연곡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경기아리랑, 홀로아리랑]

지휘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지휘 전상철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지휘 이견륜
(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2016. 9. 29(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ULTURE

LIFE

September 2016
vol.297

INVITATION TO THE ARTS

26 프리뷰

34 리뷰

36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53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전문단체 타로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퓨전음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국악 전문 단체 '타로'가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9.6(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박성희 판소리연구소 소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박성희와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장,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는 신문범이 공동대표로 있는 '타로'는 우리 전통예술의 핵심 키워드인 '악(樂)', '가(歌)', '무(舞)'가 골고루 조화된 새로운 전통 공연예술을 지향하며 부산 무대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창단공연 이후 지금까지 7회의 정기연주회와 10회의 특별기획공연 그리고 부산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공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개막식 축하공연, 부산세계불꽃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OECD세계포럼 환송만찬회, 조선통신사 한일교류대회, 한·중 수교 20주년 문화교류기념 초청공연 등 300여 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09년에는 부산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 1위로 선정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다양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는 사물놀이의 신명에 경쾌한 태평소 가락이 더해진 '태평소&사물놀이'로, 경기 호적 풍류 가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단에 맞춘 사물놀이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고려속요 '가시리'와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보다' 가사를 인용해 현대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된 창작성악곡 '시연가'와 동살풀이 장단에 얹혀진 빠르고 흥겨운 곡으로, 국악가요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배 띄워라'를 박성희 대표의 노래로 들려준다.

전통과 퓨전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선보여온 타로가 무대에서 관객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작품인 '다스리다', '두드리다'를 엮은 장구합주 '다드리'는 한국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타악기인 장구만의 합주무대로, 온몸으로 울어내는 듯한 역동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 다른 역동적인 무대인 모듬북합주 '새울림'은 타로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듬북합주의 웅

장함과 화려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마지막 무대는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과 부산을 대표하는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마지막 무대의 아쉬움을 관객과의 노래로 마무리한다.

- 공동대표/ 박성희(해설 · 노래)
신문범(음악감독 · 타악)
- 게스트/ 김경수(피리&태평소), 손한별(대금)
이지영(신디사이저), 고영철(첼로)
박경동(베이스기타), 최권호(드럼)
최만호(일렉기타)
- 총연출/ 강열우

Preview

2016 제3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지휘 김근태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6년 무대가 9월 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듀오 케미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김근태가 음악감독을 맡아 매년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온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초가를 문턱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실내악팀, 연주자들이 참여해 축제가 펼쳐지는 사흘 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떠오르는 스웨덴 출신의 바이올린, 기타 듀오 '듀오 케미(Duo KeMi)'를 비롯해 2012년 하노버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트리오 제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가 그들만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바이올린 김다미



기타리스트 Jacob Kellermann과 바이올리니스트 Daniel Migdal로 구성된 '듀오 케미'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파워풀한 연주와 폭넓은 레퍼토리로 비평가들뿐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듀오명인 '케미(KeMi)'는 그들의 성 앞자리 두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바이올린과 기타의 이색적인 앙상블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선보이고 있으며, 다른 악기와의 앙상블을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

첼리스트 이정란



2015년 루체른 페스티벌 리사이틀을 전석 매진시키며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이미 2012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피아노 이효주



지난 2004년 '월간 피아노음악(음연)'으로부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미래'로 지목된 피아니스트 이효주는 2010년 가장 저명한 국제피아노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제

9.8(목)-9(금) 오후 7:30,
9.10(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9.9(금)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네바 국제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 차세대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세계무대에 확인시켰다. 이효주는 솔로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통해 독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내악팀인 '트리오 제이드'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효주와 함께 '트리오 제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은 화려한 기교와 시적이고 감각적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연주로, 차세대 가장 주목할 만한 첼리스트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독일의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로스트로포비치 파운데이션 특별상인 최고 유망연주가상을 시작으로, 2003년 폴란드의 루토슬라브스키 콩쿠르에서 특별상, 이듬해 스페인에서 열린 클라렛모구에르 콩쿠르, 프랑스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했으며, 2006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는 영예의 1위와 현대음악특별상을, 2007년에는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올해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는 뉴월드 필하모닉,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Camerata BS가 참여하여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Preview

부산-순천시립극단 교류공연 뮤지컬 '퍼펙트 맨'



지난 2008년 전국 11개 국공립극단 중 부산시립극단과 최초로 교류공연을 가졌던 순천시립극단이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창작뮤지컬 '퍼펙트 맨'으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9.8(목) 오후 3: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07, 3147

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가로 있는 작가 겸 연출가 위성신이 직접 쓰고 연출한 뮤지컬 '퍼펙트 맨'은 지난 2012년 연출가 위성신이 연출 데뷔 20주년을 맞아 열었던 '위성신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코믹 뮤지컬이다. 일본소설 '사신치바'와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으로,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섯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밝고 경쾌하게 풀어내면서 연출가 특유의 드라마적인 탄탄한 스토리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저승사자들이 설립한, 그야말로 진짜 '유령(幽靈)' 업체인 주식회사 퍼펙트. 퍼펙트 맨들인 저승사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여러 형태의 사건들이 접수된다. 죽음을 둘러싼 의뢰인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절박한데 더러는 저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의뢰인 때문에 저승사자들조차 당혹스럽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저승사자들은 각각의 죽음들과 마주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성찰하며 그 과정을 통해 저승사자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가 죽기 이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편안한 죽음은 행복한 삶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뮤지컬 '퍼펙트 맨'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진리 속에 '나로 살고 죽는' 삶의 과정에서 사랑의 편린들을 찾아내 관객과 공유한다.

그동안 일상과 대중적인 소재를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온 작가 겸 연출가 위성신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전문가과정을 졸업하고 극단 '오늘' 상임연출가, 극단 '한강' 상임연출가를 역임했다. 대표작으로 '늙은 부부 이야기', '염쟁이 유씨',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그대를 사랑합니다', '락시터', '태백산맥' 등이 있으며 2003년 올해의 연극 BEST 7, 2008년 인천연극제와 2009년 김천연극제에서 대상 및 연출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을 찾는 순천시립극단은 민간극단 '거울'을 모태로 지난 1990년 중소도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창단된 후 현재 상임연출가 위성신을 주축으로 6명의 상임단원들이 매년 2차례의 정기공연과 특별기획공연, 찾아가는 예술무대, 시 주최 문화축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연극 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 작, 연출/ 위성신
- 작곡, 음악감독/ 박소연
- 출연/ 양서정, 김효승, 서수현, 박광재, 노광훈
이성호, 배준수, 김성진, 서위슬, 신세지
황하은, 조영임, 박효선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지휘 지중배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가을의 길목에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무대가 9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9.22(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지휘자 지중배가 지휘하고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바그너, 브루흐, 브람스 등 독일 작곡가들의 걸작을 들려준다.

지난 2015년부터 세계적인 거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수석지휘자로 있었던 독일 울름극장 및 울름시립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지중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지휘과 및 서울대학교 작곡과(지휘전공),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를 졸업하고 독일 정부 산하 독일음악협회(Deutsche Musikrat) 회원으로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3년간 독일 트리어 시립극장 및 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및 부음악총감독, 2012년 오페라 오더-슈프레(Oper Oder-Spree) 오페라 페스티벌 음악감독 및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한 지중배는 독일 전 음대 지휘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12 독일음악협회 &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 공동 주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수상하고 최근 독일음악협회 '미래의 거장' 1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어린시절부터 신동으로 유명했던 협연자 클라라 주미 강은 4살 때 최연소 나이로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해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한데 이어 뤼베크음대에서 자크하르 브론을,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김남운을 사사했다. 2010년 샌다이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에 이어 같은 해 인디애나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우승과 동시에 다섯 개의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무대에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은 솔리스트로서 뿐 아니라 드레스덴 카펠줄리стен, 뉴저지 교향악단,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 산타페 교향악단, 도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샌다이 필하모닉, 히로시마 교향악단, 카나자와 오케스트라, 타이페이 국립교향악단, 모스크바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클라라 주미 강은 2012년 동아일보가 마련한 '한국을 빛

낼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주목할 만한 연주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대원음악상'과 더불어 2013년에는 4년 만에 부활한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강렬한 힘과 여유로운 웅장함을 만끽할 수 있는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전주곡'으로 시작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바이올린의 선율로 '가장 인기있는 19세기의 협주곡'이라 불리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클라라 주미 강의 협연으로 들려주며, 마지막 곡으로 전체적으로 밝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목가적이며 포근한 느낌의 브람스 '교향곡 제2번'으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Preview

부산시립예술단 3개 단체 합동공연 국악&합창의 만남 '한국민요기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국악&합창의 만남 '한국민요기행'이 9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9.29(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5천원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607-3108, 3142

30



부산시립예술단이 추진하는 하반기 합동 프로젝트 공연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무대를 통해 '함께하는 공연,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국악과 합창이 만나는 '한국민요기행'을 통해 우리의 전통민요를 중심으로 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1부 첫 무대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작곡 '수로부인'으로 연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황의종이 작곡한 '수로부인'은 신라 향가 중 '헌화가'를 주제로 삼은 창작 국악칸타타로, '강릉태수 순정공 행차하시오', '우리가 아는 사소한 것들', '누가 저 꽃을', '헌화가', '동해 용의 노래', '내 아내 수로',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신라만세' 등 총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로 부산시립합창단이 협연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로, 영남들 노래 모음곡(백규진 편곡)과 창작곡 '아! 아리랑(이건륜 작곡)', '가시버시 사랑(이병욱 작곡)', '아름다운 나라(신문희 곡)'를 들려준다.



2부 무대 첫 곡으로는 지난해 10월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산맥아리랑'을 수석지휘

자 전상철이 이끄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의 소리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민요 '신고산타령', '춤추는 춘향이', '울산아가씨'를 들려주며 마지막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아리랑연곡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경기아리랑, 홀로아리랑'으로 합동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무대는 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는 매월 마지막 주 열리는 공연으로, 전 좌석에 한해 관람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지휘/ 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무지카비바 '바로크 & Today'



바로크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실내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무지카비바가 10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0.4(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지난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무지카비바는 그동안 요한 스트라우스 10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음악협회 5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실내악페스티벌, 부산시립미술관 토요라이브음악회, 한국유네스코 40주년 기념음악회, 메소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서울이원아트홀 초청 아티스트콘서트, 금정수요음악회, Jazz in Class, 임진각 힐링뮤직페스티벌, MBC목요음악회, 한-러 수교기념 초청음악회, 광복 70주년 기념 몽골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안정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연주로 관객과 만나온 무지카비바는 창단 이후 매 연주회를 통해 남녀노소, 계층을 뛰어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소통의 무대를 만들어오고 있다.

박경희 음악감독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홍기정, 오근영, 우소라, 최은혜, 고연경, 안은탁, 김신실, 비올리스트 박주연, 유리아, 첼리스트 전명희, 심어라, 더블베이스 박희철, 피아니스트 서혜리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 Today'라는 테마로 '바로크음악의 3총사'라 불리는 바흐와 헨델, 비발디, 그리고 초기 바로크시대의 이탈리아 여성작곡가 카치니의 작품과 우리나라 현대작곡가 이영조, 임지선 연세대학교 교수, 영국의 현대작곡가 칼 젠킨스의 작품을 들려준다.

첫 무대는 비발디의 무대로, 현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Paris'와 비발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사계' 중 '가을'을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현숙 동아대학교 교수가 우리에게도 친숙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올케하소서'와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카치니 '아베마리아'를 들려준다. 1부 무대 마지막 곡으로 는 옛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는 정경을 그린 곡으로, 해학과 유머가 가득한 이영조 곡 '줄풍류II

하늘천따지'를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의 솔로 연주로 들려준다.

2부 무대는 작곡가 임지선의 '신들러리스트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에 이어 바흐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BWV 1043'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우소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영국 작곡가 칼 젠킨스(Karl Jenkins)의 현을 위한 합주협주곡 '팔라디오(Palladio)'로, 작곡가 젠킨스가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건축가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 음악감독, 협연/ 박경희(바이올린)
- 협연/ 김현숙(소프라노), 우소라(바이올린)
정준하(클라리넷), 박희철(더블베이스)

2016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

32



9월 3일(토)~11월 30일(수)

부산시립미술관,
F1963(고려제강 수영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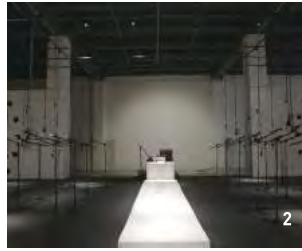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9월 3일 개막전까
지 예매시 일반 1만원, 청소년 5
천원, 어린이 3천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16 부산비엔날레가 9월 3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세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제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지역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 등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특히 조각심포지엄의 결과로 남겨진 작품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시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에 기여한 공공미술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36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016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으로, 전시(Project 1, Project 2)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Project 3)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본전시, 특별전으로 양분되었던 전시 개념을 탈피하고,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서로 어우러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전시는 1990년대 이전의 한·중·일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다루는 'Project 1'과 1990년 이후 대두한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을 다루는 'Project 2'로 나뉜다. 'Project 3'은 다양한



1 네덜란드_조로 피글, Poppy 240cm x 240cm x 1000cm, 2015
 2 호주_선 사오민, Art History, 2015
 3 한국_김구림, 현상에서 흔적으로 300x200cm, 1970
 4 중국_치우 즈지에, Tattoo 2, 1994
 5, 7 2014 비엔날레
 6 중국_왕 광이, Reason in Red - Revision of the Idols 160cm x 200cm, 1986.

종교, 인증, 국적의 예술인들과 학자들이 모여 이 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학술프로그램과 세미나로 구성된다. 전 세계 22개국 118명(팀)이 참여하며, 미술뿐 아니라 건축, 디자인, 공연과 세미나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질적 언어와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장을 펼친다.

특히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는 'Project 1'은 한·중·일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전시주제인 'an/other avant-garde china-japan-korea'에서 'an'은 아방가르드의 전위 정신은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other'는 전위정신은 하나일 수 있으나, 한·중·일 3개국의 예술이 당시에 처한 상황과 형식은 저마다 다름을 의미한다. 잊혀져 왔던 아시아 3국의 실험 미술을 반추하고 전 세계 미술사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전시로, 중국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의 문화대혁명부터 '북경의 봄', 천안문사태까지의 저항과 갈등의 시기를, 일본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히로시마 원폭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전위예술, 구타이, 모노하, 슈퍼플랫

의 일부분을, 한국은 1960년~80년대까지의 실험미술 중 개념예술, 해프닝, 미디어와 같이 단색화와 민중미술에 가려졌던 한국 당대 미술의 영역들을 다룬다. 한국의 김찬동, 중국의 구어샤오옌, 일본의 J-team(사와라기 노이, 타테하타 아키라, 우에다 유조) 등 5명의 전문 큐레이터들이 참여했으며, 3개국 총 64명(팀)의 작품 137점이 전시된다.

22개국 54명(팀)이 참가하는 'Project 2'는 고려제강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F1963(고려제강 수영공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4 부산비엔날레의 특별전 개최지로 전체 면적의 일부가 사용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약 3,000평에 달하는 전체 부지가 활용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도 갖게 되었다. 건축가 조병수가 리모델링을 맡은 F1963은 일반적인 화이트큐브의 전시공간이 아닌, 공장 본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주제인 '흔들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시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중정'은 학술, 공연 등이 개최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름 밤 해운대를 음악의 향기로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박진홍 음악평론가



올 여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는 문구가 연일 TV의 헤드라인으로 걸리고, 휴대전화에서는 매일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메시지들이 날아들었다. 뜨거운 여름의 한 가운데 있던 지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중 오케스트라들의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통해 공연장은 문화예술 공연의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단체는 공간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아래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부산 시민들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첫 날인 9일에는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을 연주했다. 해운홀의 무대 크기 때문에 연주자 수를 줄여 무대를 구성했지만 풍부하고 부드러운 음향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여름의 열기를 다소나마 잊게 해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나의 모차르트 협주곡 협연은 아주 섬세하고 깔끔한 무대였다. 이날 연주 프로그램은 작품의 작곡 연대순으로 연주를 하였고, 악기의 구성이 점차 늘어나는 형태로 배치되어, 구조적인 확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영도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꾸민 '현악 사중주의 밤'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은 하이든의 종달새, 하이드리히의 생일 축하 변주곡, 드보르작의 아메리카, 그리고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음악 애호가들의 귀에 익은 현악 4중주곡들이 연주되었다. 민간 오케스트라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BSO의 현악기 수석단원들이 펼치는 실내악의 향연이라 감상하는 즐거움이 더욱 컸다. 현악기의 섬세함이 잘 묻어났고, 작품 전체의 다이나

믹과 악기 간 밸런스가 좋았던 무대였다.

셋째 날인 11일에는 해운대문화회관의 상주단체인 T.I.F. 오케스트라의 산하 단체인 부산클라리넷파르텟과 T.I.F. 금관 5중주단이 연주를 선사했다. 이날은 리베르 탱고,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 미스티, 싱싱싱, '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미스 트롬본 등 탱고,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전반부에는 클라리넷파르텟이 연주하였는데 클라리넷 특유의 목가적인 분위기와 섬세함,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고, 특히 기교적인 연주를 역동적으로 해석해 관객들의 큰 환호를 이끌어 냈다. 후반부에는 금관 5중주가 연주되었는데 5대의 금관악기들이 쏟아내는 목직하면서도 크고 화려한 음색이 한 여름의 더위를 날려주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날인 12일, 피날레는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부산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시네마 콘서트'였다. 이날은 올림픽 스피릿, 카르멘 전주곡, 아를의 여인 중 미뉴엣, 영화 '시네마 천국' 주제곡, 타이스 명상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등 오페라, 모음곡, 영화음악이 연주되었다. 섬세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연주곡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며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슈트라우스의 대장간 풀카 연주에서 대장장으로 분장한 타악기 주자가 등장하여 유쾌함을 주었고, 할머니로 분장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작스런 암전 이후 우아한 드레스로 변복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주어 감상의 즐거움을 더했다. 나흘간의 축제, 한 낮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 상주 오케스트라들이 선사하는 편안하고 유쾌한 음악으로 식힐 수 있는 무대들이었다. 각 공연장을 기반으로 늘 아름답고 행복한 음악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하며,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Review

박현진 개인전 -반짝반짝 빛나는-

2016. 7. 15~8. 27 갤러리 아트 숲

박미경 화가



숲, Electric Wire, Wood, Light bulb, Glass, 가변설치 2016



빛 방울, Electric Wire, LED, Wood, Glass, 가변설치, 2016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바라보며 느꼈던 사물의 본질과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물의 본질에는 차이가 있다.

박현진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개인의 경험과 사유에 따라 작품이 달리 보여질 수 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는 마냥 귀여운 장난감 모양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젊은이의 눈으로는 스마트폰의 시각적 이미지인 캐릭터로 보여질 수 있고 중, 장년층의 시각으로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릴 만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는 듯 생각에 잠길 것이다.

박현진의 작품들은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입체적 드로잉이다. 작품 속 입체물은 일상과 다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편견과 규칙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시각을 색다른 사색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한다.

작가는 빛과 전선으로 작품을 표현한다. 빛은 따뜻함과 희망적 소망을, 전선은 입체적 선 드로잉으로 넓은 벽의 공간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양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빛으로 연결된 전선의 의미를 이미지와 부합하게 하여 시각적 선 드로잉으로 생명력을 지닌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 전선의 움직임이 주는 선 드로잉과 그 끝에서 반짝이는 빛은 빛으로 스며들어 상상의 나라를 펼쳐게 하는 것 같다.

전선과 연결된 양은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되며 전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빛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그 이상의 흥미로운 상상력을 이끌어 낸다.

작가의 작품은 가장 기본적인 점, 선, 면의 틀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자유로움과 따뜻함, 사랑스러움을 표출해내며 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들을 끝없이 확장해 나간다. 그의 작품 속 공간과 이미지에 대한 깊은 사유는 이러한 입체적 드로잉을 이용한 시공간의 어울림으로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다.

2016 제7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 년 첫 선을 보인 후 최정 상의 클래식 음악축제를 지향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2016 부산국 제마루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5월 21일 예선을 거쳐 선정된 한국, 미국, 캐나 다,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의 차 세대 유망 연주자 10명이 지휘자 호세 플로레스가 지 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 협연/공성연(마리바, 한국), 이승준(바순, 한국), Grace Sohn(첼로, 캐나다), 이승민(성악, 한국), Juhasz Ildiko Orsolya(피콜로, 헝 가리), Nathan Mertens(알토 색소폰, 미 국), Alon Stoler(트럼본, 이스라엘), 이재린 (바이올린, 한국), Grzegorz Niemczuk(피 아노, 폴란드), 김상일(피아노, 한국)

제3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협회가 부산 창 작음악 발전을 위해 마련 한 제3회 창작오케스트 라의 밤. 작곡가 김국진, 최삼화, 박규동, 김보현, 강영 화, 강원중의 창작곡을 지휘자 윤상운이 이끄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와 피아니스트 유영욱, 강남길, 진승민의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박규동/교향적 그림 '동해'
- 최삼화/오케스트라를 위한 '썬16'
- 강원중/더 해머링(The Hammering)
- 김보현/오케스트라를 위한 '마주하거나 혹은 비껴가 거나'
- 강영화/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청포도'
- 김국진/병행하는 끼레이스키
- 지휘/윤상운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피아노/유영욱, 강남길, 진승민

2016 제7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 폐막콘서트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 오 포드 오케스트라와 벅슈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 스트 지에 위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출신의 세계 정상 바순리스트 브람 반 삼빅의 협연 으로 화려했던 8일간의 축제의 막을 내린다.

|프로그램|

- 바그너/탄호이저 서곡
-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작품 21
- 베버/인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다단조 작품 35
-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11번 사단조 작품 103 '1905'
- 지휘/장 프랑수아 리베스트
- 연주/캐나다 오프드 오케스트라
- 협연/지에 위엔(피아노), 브람 반 삼빅(바순)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070-8883-8004, 010-3078-0545

발레의 창작활동 육성 및 지원, 국내외 단체와의 협 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사)한국발레 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단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 장인 민병수 부산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부산예술고 등학교 발레 전임 이화성, 정성복 J발레단 대표 정성 복, 김옥련발레단 예술감독 김옥련의 안무로 클래식 발레 및 창작발레 4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파키타(Paquita) 중, 창작발레 '2016 Bol ro', '해적 중 그랑 파드되, 창작발레 '운수 좋은 날'



제28주년 부산새싹발레단 정기공연 '발레리나를 꿈꾸며'

일 시 | 9월 4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새싹발레단 865-2277

대한민국의 춤을 이끌어갈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 하기 위하여 지난 1988년에 창단한 부산새싹발레단 의 정기공연.

올해로 창단 28주년을 맞는 부산새싹발레단은 그동안 수많은 무용수들을 배출하면서 부산 발레의 요람 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발레리나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 에서는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모던발레, 창작발레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해적' 3막 중 '꽃의 정원' 군무와 솔로 바리에이션, '겐자노의 꽃축제' 중 남·녀 바리에이션과 군무, '돈 키호테' 중 그랑 파드되, 창작발레 '꼭두각시'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기억의 풍경'

일 시 | 9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1만원

문 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8545-4816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부산가야금연주단의 12 번째 정기연주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 해외 초청연주회, 특별연주회, 상설공연 등 연간 20~30회의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중앙관현악단 부지휘자, 여수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역임한 이경성이 지휘하고 KBS국악관현악단원, 경 기도립국악단 해금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해금주자 강은일과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소로 객석을 압도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송산이 협 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궁중음악에서부터 가야금중 주, 창작곡 외에도 가야금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 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악전문단체 타로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퓨전음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국악 전문 단체 '타로'가 펼치는 신명나는 무대.

'타로'는 우리 전통 예술의 핵심 키워드인 '악(樂), 가(歌), 무(舞)'가 골고루 조화된 새로운

전통 공연예술을 지향하면서 매년 뜨거운 성원 속에서 매진시위를 이루어내며 부산 무대예술계에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 공동대표/박성희(해설, 노래) 신문범(음악감독, 타악)
- 게스트/김경수(피리&태평소), 손한별(대금), 이지영(신디사이저), 고영철(첼로), 박경동(베이스기타), 최권호(드럼), 최만호(일렉기타)
- 총연출/강열우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VIII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아름다운 명작 오페라의 감동을 전하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팍스오케스트라의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여덟 번째 무대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이번 무대는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 그들을 돕는 피가로의 활약을 그린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그 후속작으로 피가르가 백작부인이 된 로지나와 함께 자신의 아내인 수잔나에게 눈독들이는 바람둥이 백작을 혼내주는 과정을 그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음악학 박사 윤성원의 알기 쉬운 해설로 진행했다.

- 지휘/윤상운 • 해설/윤성원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데카코르데 연주회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옥석대 010-6313-1718



클래식기타리스트 옥석대가 들려주는 10현 클래식기타 연주회 '데카코르데 연주회'.

'Deca(10)'와 'Corde(줄)'의 합성어로 10현 클래식 기타를 뜻하는 '데카코르데(Decacorde)'는 클래식 기타에 저음현을 4줄 더 추가하면서 일반

클래식 기타보다 풍부한 소리를 들려준다. 지난 2000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연주자로서는 최초로 10현 클래식 기타 독주회를 가진 바 있었던 옥석대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다양한 곡을 10현 클래식 기타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타레가/눈물, 아라비아 기상곡,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알베니스/아스투리아스
- 망고레/대성당
- 바흐/사콘느
- 파헬벨/캐논변주곡
- 등려군/영화 '첨밀밀' OST 중 '月亮代表我的心'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9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음악도들의 등용문으로, 3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연자들을 배출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사)부산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BNO)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는 홍성택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7명의 음악도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수준높은 협연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세주르네/마림바 협주곡 중 제2악장
-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라단조 작품 31 중 제4악장
-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중 제1악장
- 바르톡/비올라 협주곡 작품 128 중 제3악장
-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작품 314 중 제1악장

쇼스타코비치/첼로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 107 중 제4악장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작품 21 중 제1악장

- 지휘/홍성택(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이찬욱(마림바, 경성대학교 4년), 김하람(바이올린, 부산예술중학교 3년), 이예진(클라리넷, 부산예술고등학교 3년), 권덕진(비올라, 부산대학교 4년), 방보민(오보에, 부산예술고등학교 3년), 양수빈(첼로, 부산예술고등학교 3년), 이원규(피아노, 인제대학교 3년)



부산-순천시립극단 교류공연 뮤지컬 '퍼펙트 맨'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지난 2008년 전국 11개 국공립극단 중 부산시립극단이 최초로 교류공연을 가졌던 순천시립극단이 2016년 부산, 순천 교류공연으로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퍼펙트 맨'.

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가로 있는 작가 겸 연출가 위성신이 직접 쓰고

연출한 뮤지컬 '퍼펙트 맨'은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섯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밝고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연출가 특유의 드라마적인 탄탄한 스토리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 작, 연출/위성신
- 작곡, 음악감독/박소연
- 출연/양서정, 김효승, 서수현, 박광재, 노광훈, 이성호, 배준수, 김성진, 서위슬, 신세지, 황하은, 조영민, 박효선

2016 제3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일 시 | 9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10일 토요일 오후 2:00 **중극장**
9일 금요일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2016년 무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란새가 음악감독을 맡아 매년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

어은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초가를 문턱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실내악팀, 연주자들이 참여해 축제가 펼쳐지는 사흘동안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떠오르는 스웨덴 출신의 바이올린, 기타 듀오 '듀오 케미(Duo KeMi)'를 비롯해 2012년 하노버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트리오 제이드의 멤버로 활

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이효주가 그들만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8일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Choros 제1번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비탈리/사쿰느
멘덴스존/피아노 트리오 라단조 제1번 작품 49
• 연주/듀오 케미, 김다미(바이올린), 이정란(첼로), 이효주(피아노)

9일 프로그램[부산시립미술관]

이자이/소나타 제4번
타레가/아라비아 기상곡
피아졸라/탱고 모음곡 등
• 연주/듀오 케미

9일 프로그램[중극장]

스벤센/로망스
비발디/기타협주곡 라장조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등
• 연주/듀오 케미, Camerata BS

10일 프로그램

생상/동물의 사육제
• 연주/듀오 케미, 이효주, 정다슬(피아노), 서선미리(플루트), 백양지(클라리넷), 한범규(마림바), Camerata BS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한가족 음악회

일 시 | 9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4565-0178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해 전문연주인, 학부모 후원회로 구성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2007년 지금의 오케스트라 형태로 재구성된 이래 9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초등학교 꿈나무 음악회, 부산KBS 동요대회 '신나는 날 즐거운 날' 특별출연, 유진박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부산청소년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 등을 들려준다.

• 지휘/윤강수 • 사회/조면주(TBN교통방송 MC)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제9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16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 시 | 9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문의 | KNN 850-9568, 9566



지난 1952년 창립 이후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부산이 배출한 마에스트로 오충근, 코스모폴리탄 트리오 비엔나가 함께하는 2016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현재 상임지휘자 리오 샴비달(Lior Shambadal)의 주도 아래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에 상주하며 매 시즌마다 100여 차례의 연주회를 통해 유럽인들의 가슴에 밀고 듣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5년 첫 내한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이번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KNN방송 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오충근 지휘자는 지난해 4월 프

라하 스메타나홀에서 체코의 대표곡인 '몰다우강'과 '신세계로부터'로 현지인들의 본 감성을 사로잡았으며, 그 해 11월 세계적인 연주출신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으로 유럽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벳 크롭피치(비엔나 국립음대 교수), 피아니스트 마리알레나 페르난데스(비엔나 국립음대교수), 첼리스트 여미혜(비엔나 아이엠케이 전속 솔리스트)로 구성된 코스모폴리탄 트리오 비엔나는 앙상블의 가장 완벽함과 집중도 속에 음색의 조화를 통해 로마와 이태리 등 유럽 관객은 물론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 43
베토벤/삼중협주곡 작품 56
베토벤/교향곡 제7번 작품 92



리스트 서거 130주년 기념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리스트의 여정

일 시 | 9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성으로 매 공연마다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리스트 서거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리스트의 여정'.

그동안 폭발적인 에너지와 피아니즘, 고난이도의 테크닉과 열정으로 끊임없는 연주활동을 펼쳐온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독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박정희는 현재 Trio Piacé, Sento Chamber Society 멤버이자 동아대학교 조교수로 연주활동 뿐만 아니라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순례의 해’ 중 ‘오베르망의 골짜기’
리스트/탄테소나타
리스트/발라드
리스트/돈주앙의 회상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순회공연 가을의 소리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민정민 010-6426-8685

지난 2015년 10월 '가야금의 고장' 고령의 역사적 전통성을 확보하고 가야금의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창단된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부산공연.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은 지난해 12월 창단공연을 가진 후 올해 4월 고령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대가야체험축제에서 축하공연을 가진 바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했던 강미선이 초대 음악감독으로 있는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열두 줄 전통 가야금의 선율과 판소리, 가락악기들과 함께 합주하는 산조합주, 개량 가야금인 25현가야금의 연주로 들려주는 친숙한 대중음악, 가야금과 소리가 하나의 멋진 조화를 보여주는 가야금병창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일 시 |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5



가을의 길목에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22회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 세계적인 거장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이 수석지휘자로 있었던 독일 울름극장 및 울름시립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 있는 지중배가 지휘하고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바그너, 브루흐, 브람스 등 독일작가들의 걸작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그너/‘누른베르크의 명가수’ 전주곡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브람스/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73

제2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 반주전공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홍지혜 010-9940-1201



매년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레파토리를 반주를 통해 기존의 곡들을 새로이 조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소개 해온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반주전공자들이 마련하는 두 번째 정기연주회.

고신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유럽 각지의 무대 경험을 통해 국립오페라단과 서울, 부산에서 음악코치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홍지혜 교수와 전공자들이 예술가곡의 새로운 장을 연 후고 볼프의 '이탈리안 가곡집'과 비제의 '카르멘'을 건반 위 화려한 연주로 들려준다.

유한승 재즈 기타 콘서트

일 시 | 9월 25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문의 | 유한승 010-4938-9618



뉴욕 파이브타운스칼리지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로 있는 재즈기타리스트 유한승 재즈콘서트. 유한승은 그동안 재즈 기타 콘서트를 비롯해 유한승 트리오의 'Falling in Jazz', 'Summer Jazz Concert in Haeunde', 'All About Jazz', 대구국제재즈축제, 이상근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재즈기타를 위한 코드톤 워크북, Jazz Licks for Improvisation 등을 출간한 바 있다.

1부에서는 기타와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재즈트리오를, 2부에서는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의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지는 기타 연주를 들려준다.

- 연주/유한승(기타), 홍경섭(베이스), 홍성률(드럼), 안우성(트럼펫), 심규성(트럼본), 김승모(색소폰)

멜로매니아 제2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멜로매니아 010-9554-0115



젊은 시절 못다 이루었던 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1994년 9월, 남성 성악동호회로 출발한 멜로매니아의 22번째 정기연주회.

매주 1~2회 전문 성악인들에 의한 트레이닝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멜로매니아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테너 박인수 초창음악회, 회원환갑기념 독창회, 창립 10주년 가족음악회, 가곡과 성가의 밤, 바다사랑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울 멜로매니아를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 테너/정량부, 원요한, 윤치연, 신재철
- 바리톤/한성권, 김성홍, 송은섭, 배태균
-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곽유희

부산시립예술단 3개 단체 합동공연 국악&합창의 만남 '한국민요기행'

일 시 |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607-3105, 310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국악&합창의 만남 '한국민요기행'. 부산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무대를 통해 '함께 하는 공연,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과 합창이 만나는 '한국민요기행'을 통해 우리의 전통민요를 중심으로 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전상철(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가족, 함께하는 행복코러스

일 시 | 9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코러스합창단 010-2551-7542



지난 1999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전문 음악인들과 합창 애호가들이 모여 결성된 순수 민간 혼성합창단인 부산코러스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부산코러스합창단은 부산지역 민간 합창단 중 최대 규모의 합창단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세계합창올림픽, 부산합창제, 열린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고전의 향기/Lascia Chio Pianga, Caro Mio Ben, Ombra Maifu, Where'er
노래는 내 인생/사랑의 인사, 음악은 항상 내 곁에, 간직하자 이 음악, 노래는 실내악과 함께 추억의 미국 민요 합창/꿈길에서, 올드블랙조, 할아버지의 시계, 오 수제너 등 수곡
• 지휘/한성용
• 반주/최지선, BNK 부산은행 실내악단

2016 제54회 부산예술제 명품연극열전-3인3색전 1탄 런더풀 투나잇

일 시 | 9월 30일 금요일 오후 8:00, 10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매년 봄 개최되는 부산연극제 및 부산국제연극제와 더불어 부산예술제가 열리는 가을, 부산의 연극축제로 자리잡아온 명품연극열전 3인3색전 1탄 '런더풀 투나잇'. 론니(Lonny)와 원더풀 투나잇(Wonderful Tonight)을 합친 '런더풀 투나잇'은 동네 어귀에 있는 간판도 없는 허름하지만 정감있는 술집을 배경으로, 가족도 친구도 위로해줄 수 없는 혼자만의 마음을 쓸쓸히 달래주기 위해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그 속의 사람들 이야기를 '부산'의 색깔을 담아 무대 위에 펼친다.

- 작/김영민, 구현욱
- 연출/김세진(극단 세진 대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무지카 비바 '바로크 & Today'

일 시 | 10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바로크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탕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실내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무지카 비바 '바로크 & Today'. 지난 1998년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무지카비바는 그동안 안정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연주로 관객과 만나왔다.

- 바이올린/박경희, 홍기정, 오근영, 우소라, 최은혜, 고연경, 안은택, 김산실
- 비올라/박주연, 유리아
- 첼로/전명희, 심어라
- 피아노/서혜리
- 협연/김현숙(소프라노), 우소라(바이올린), 정준하(클라리넷), 박희철(더블베이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27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9월 3일 부산시립무용단 '춤의 회화전'



[프로그램]

살풀이춤(출연/김동숙, 오숙례, 정진희)
남무(출연/장래훈)
경교춤(출연/박창희, 오수연, 김경미, 김시현)
대장금(출연/권봉정, 이현정, 박은혜, 김도은, 김수잔)
창부터령(출연/김진영, 전혜련, 황동하, 전현우)
목포의 눈물(출연/강모세, 정진희)

사랑과 영혼(출연/최의옥, 황동하)
웃게하소서(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출연진)
• 예술감독/김용철
• 훈련지도/서정숙

9월 1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Brass Quintet'

[프로그램]

한 걸음 더 가까이(Just a Closer Walk), 뉴욕, 뉴욕(New York, New York), 티후아나 택시(Tijuana Taxi), '비엔나는 언제나 비엔나' 행진곡(슈람멜 곡),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 라수스 트롬본(Lassus Trombone, 필모어 곡), 밤안개 속의 데이트(La Playa), 사랑은, Gonna Fly Now(영화 '록키' 주제곡), 인스턴트 콘서트(Instant Concert)
• 트럼펫 I/김세운
• 트럼펫 II/김신희
• 혼/부상현
• 트럼본/정현빈
• 튜바/이석중
• 세트드럼/이창섭

9월 24일 후 브라스콰이어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서곡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Nessun Dorma)'
영화 '겨울왕국' 모음곡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로시니/오페라 '윌리엄텔' 서곡 중 'Finale'
영화 '스페이스 카우보이' 중 'Fly me to the moon'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영화 '미션' 중 '넬라 환타지아(Nella Fantasia)'
영화 '슈퍼마리오' 모음곡
영화 '로키4' 중 'The Final Countdown'
• 트럼펫/김동현, 전상운
• 혼/김영민
• 튜바/김기울
• 소프라노/강주희
• 트럼본/최민재
• 세트드럼/하경륜

Music 음악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공연 창작민요극 '세 여자의 아리랑꽃'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젊은 소리꾼들로 결성된 여성 민요그룹 '아리수'가 선보이는 창작민요극 '세 여자의 아리랑꽃'. 올해 초 발표한 아리수의 3집 음반 '여성, 아리랑꽃으로 흥날리다'에 수록된 창작민요와 판소리로 제작된 '세 여자의 아리랑꽃'은 자유롭고 당찬 20대의 멋진 여자, 작장과 가정을 두 어깨에 짊어진 30대 슈퍼우먼,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교육이 모두인 40대 아줌마 등 이 시대 여성의 삶과 애환을 세 명의 전통 소리꾼과 배우가 노래와 연기로 펼쳐낸다.

2016년도 등꽃음악축제 작곡가 김국진과 제자들 歌曲과 피아노의 밤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작악회 010-6577-3255



작곡가 김국진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작악회가 마련하는 등꽃음악축제 2016년 무대. 올해 부산시문화상 공연 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국진 선생의 문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가곡과 피아노의 밤'이라는 부제로, 김국진 선생을 비롯해 문현애, 이주애, 최수남, 김성광, 태미, 김성희, 육수근의 창작곡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김국진/담사곡(譯詩曲) 작품 120편
문현애/수평선(한명수 작사)
김성희/양구비꽃(이유리 작사) 등 수곡
• 소프라노/변향숙 • 바리톤/안세범
• 피아노/이소영, 이경미, 이미라, 문대은

(사)더 솔로이스츠 창단 1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사)더 솔로이스츠 070-7434-4502

국내의 우수 교향악단의 악장 및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더 솔로이스츠'의 무대. 스트링 오케스트라,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목관 오중주, 현악 사중주, 그리고 아마추어 스트링 카메라타까지 5개의 단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더 솔로이스츠'는 현악, 관악에서뿐만 아니라 건반 및 아마추어 연주자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실내악에서부터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창단 1주년을 기념해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김성숙, 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9) '그대와 함께 춤을(Shall we Dance?)'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안준희 010-4151-3667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덕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예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레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 시리즈 9번째 무대. 크라이슬러, M. Cornic, 피아졸라, 스트라우스 등 춤곡과 관련된 여러 작곡가의 1piano 4hands 곡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이수진 리사이틀 '꿈, 열정, 그리고 사랑이여'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이수진 010-2817-1910



부산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으로 데뷔한 후 그동안 '코지 판 투테', '라보엠',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주역 및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마리아 역으로 관객과 만나온 소프라노 이수진 리사이틀.

그동안 음악에 대한 끊임 없는 열정과 탐구심으로 관객과 만나온 이수진은 이번 무대에서 '꿈, 열정, 사랑이여'라는 부제로, 프랑스 작곡가 G. 포레, 독일의 거장 R. 스트라우스의 주옥같은 가곡들과 한국가곡, 우리의 인생을 4계절에 빚낸 L. 로날드의 연가곡 'A cycle of life',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G.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반주/안준희
• 해금/김수빈(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경찰 음악동아리 '知音'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 '知音' 총무 강승훈 010-3198-5811

21C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첫 발을 내딛은 부산경찰 음악동아리 '知音'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바이올린, 플루트, 클래식기타에서부터 색소폰, 통기타, 락밴드, 발리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5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知音'은 지난해 9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창경 70주년 기념 부산경찰 작은음악회, 교통·생안협력단체 어울림 한마당, 연재구 한마당(온천천)축제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知音'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음악회, 부산의료원 통사모와 환우들을 위한 조인 콘서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도 펼쳐오고 있다.



제31회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 국제교류음악회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지난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7년 6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는 특히 2007년, 2011년, 2012년 베트남 하노이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베트남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면서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교류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프로그램]

글린카/무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 지휘/임준오(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지휘자)
- 바이올린/동민청(베트남 하노이 국립음악원 교수)

플루트 사중주 '울' 세 번째 이야기 '꽃보다 아름다운...'

일 시 | 9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 김인호 010-4554-7777

허연지(플루트), 최은정(플루트), 김인호(알토플루트), 정병태(베이스플루트) 등 부산에서 명망사로, 오케스트라, 앙상블 지휘자, 음악감독,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4명의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플루트 사중주 '울'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10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플루트 사중주 '울'은 '관객과의 소통'을 팀의 모토로 삼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재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플루트 사중주의 풍성한 매력으로 들려준다.

BS오퍼스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2016년 웰빙콘서트

일 시 | 9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BS오퍼스앙상블 010-4353-6634



부산과 서울, 경남지역 등에서 각 분야의 솔리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연주가들로 결성된 BS오퍼스앙상블의 정기연주회.

BS오퍼스앙상블은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피아노 듀오, 트리오, 현악 4중주, 피아노 5중주, 현악 5중주, 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편성과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실내악 음악의 저변확대와 음악적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 피아노/유영옥, 이동성, 최은주, 구미정, 진승민
- 바이올린/여주현, 남수진
- 비올라/김규
- 첼로/김근혜
- 플루트/황미리
- 바순/성진호
- 드럼/장경식
- 소프라노/조윤정
- 바리톤/시영민
- 발레/최여경
- 해설/김정훈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최낙주 010-4536-2351



현재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낙주는 대학 3학년 때 가진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독일 Eurasia 문화재단 초청으로 유학시절 3차례 독주회와 졸업 독주회를 가졌으며 귀국 후 대구, 부산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올해 13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독주회 외에도 4차례 듀오무대를 비롯해 체코 야나체 챔버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아울로스, 부산아트플루트, 베네스토,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최낙주는 현재 경북대학교 및 대학원,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 피아노/장효진

제30회 영호남 교류음악회 향토 지역 작곡가의 밤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성악아카데미 010-4785-9587

부산과 광주, 대구, 전주 등 4개 도시 성악아카데미가 함께하는 제30회 영호남 교류음악회. 각 지역 향토 작곡가들의 다양한 창작가곡을 통해 한 국창작가곡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부산성악아카데미

- 작곡/백현주
- 출연/박기범, 박현진, 김유진, 최하숙, 김성배, 박현정, 이홍득, 이소영, 이상철, 이민정, 박지인, 노미숙, 조희정, 백현영, 안세범, 김기환, 김길수, 양승업, 김정대, 김화정, 이지영

광주성악아카데미

- 작곡/정애련, 김소정, 김정수
 - 출연/양승이, 김영실, 구재창, 이영아
- 대구성악아카데미**
- 작곡/박태준, 현제명
 - 출연/김은지, 이영규, 유혜제, 김동녕, 김유환, 최용환, 윤성우, 정혜경

전주성악아카데미

- 작곡/이종록
- 출연/오연진, 이대혁, 김승곤, 정현주, 김윤미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그림을 노래하다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도르트문트 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은옥은 현재 오케스트라 주자, 솔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악 무대를 통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은옥은 지난 2008년 창단 후 탄탄한 연주실력으로 음악애호가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Ensemble di Mare, Sento Chamber Society 리더로 다양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작품 42 제3번 '멜로디'
-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작품 78 '비의 노래'
-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성민주

제 25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 9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7767-4390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대학교 출신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매년 1~2회의 정기공연 및 초청공연, 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프랑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우리 가곡의 밤', '잊지 못할 레슨 시간'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등 4편의 오페라 갈라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옥해나, 김양자, 양성희, 장은영
- 테너/서훈하, 김성배
- 바리톤/오세민, 하병욱, 조현수
- 베이스바리톤/양종근
- 베이스/최현욱
- 피아노/이현주, 이경미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균일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 프로젝트앙상블 바람
'wind&wish' X Quartet C.P



'바람'을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더 좋은 음악, 더 행복한 음악을 '바라다'라는 뜻을 지닌 프로젝트 윈드 앙상블 바람 'wind&wish'와 인제대학교 출신으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타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Quartet C.P의 무대.

- 바람 'wind&wish' 박소담, 우디연, 원훈식, 이지현, 이호주
- Quartet C.P/강병곤, 김세연, 박병진, 조용성
- 찬조출연/고성현(동아대학교 2학년)

21일 부산반주연구회 제7회 정기연주회
'오페리아 놀자 II'
지난 2010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주전문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부산반주연구회의 7번째 정기

연주회, 실내악, 가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꼭 필요한 반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창단된 부산반주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반주/고영주, 공소현, 김경미, 김선희, 김성희A, 김성희B, 김아영, 김은경, 김주리, 박미은, 안산애, 이화영선, 조은지, 한혜진
- 게스트/소프라노 김유진, 이지은, 테너 김지호, 김기형, 바리톤 안세범, 베이스 이철훈

28일 유희정&정아연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간반 위의 Dance'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아노 연주학 석사, 템플대학교 피아노 반주학 및 실내악 석사, 미시간 주립대학교 피아노 연주학 석사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유희정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 보스턴대학교 박사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정아연의 듀오무대.

- 프로그램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브람스/헝가리 무곡
모슈코프스키/5개의 스페인 춤곡
생상/죽음의 무도 등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부산 나눔 플루트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여름날

일 시 | 9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플루티스트 성기업, 황미리, 손소정, 이효권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 나눔 플루트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플루티스트 성기업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음악대학 석사,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황미리는 프랑스 Jean Wiener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La Schola Cantorum de Paris 시범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손소정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실내악 석사과정(재학 중)을, 이효권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꿈을 찾아가는 감성콘서트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7:00,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지난 12년간 1,600여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변치않는 감동의 무대를 전해온 피아니스트 윤효간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 팝과 클래식, 동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와 영상, 진솔한 이야기가 혼합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피아노와 이빨'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독특한 이력을 쌓으며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효간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마음의 가치가 주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한 편곡으로 새로워진 '음악'들과 전세계 투어 무대를 담은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 용기를 전해준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영화음악 '씨네콘서트'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학생 50%,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추억의 영화 속 명곡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씨네콘서트'. 수석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솔리스트 및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지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록키', '인디애나 존스', '레미제라블', '씨네마 천국', '가을의 전설'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OST를 스크린영상과 상세한 해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 지휘, 해설/홍성택
- 협연/테너 김지호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0th & appassionato 열정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진이 동아대학교 교수 재직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독주회.

동아대학교 부임 첫 해 연주한 슈만의 곡들과 초기를 정취에 어울리는 베토벤, 멘델스존의 곡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이명진 교수와 화음을 맞춰온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올리버 케른 교수가 어김없이 한국을 찾아와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실력파 연주자이자 교수이면서 현대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기도 한 이명진은 이번 무대에서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깊이 있는 해설로 관객들에게 폭넓은 감동을 선사한다.

• 피아노/올리버 케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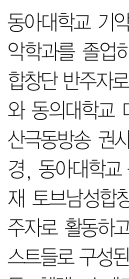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29·30·31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수음양상블'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동아대학교 기악과와 동의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경한소리합창단, 메아리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희와 경성대학교와 동의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극동방송 권사합창단 전속 반주를 맡고 있는 최윤경,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토보남성합창단, 부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지연 등 3인의 여성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수음양상블이 출연, 모차르트, 하이든, 헨델, 슈베르트, 슈트라우스, 릿시니, 베르디 등 고전·낭만시기를 수놓았던 명곡들을 엄선해 들려준다.

• 진행/고민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예술가의 시'

일 시 | 9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하노버 국립음대 Konzertexamen 최고 연주자과정,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카네기홀 독주회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황성훈은 그동안 부산 MBC 음악콩쿠르 대상, 해외파견 음협콩쿠르 1위,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3위, Epinal 국제콩쿠르 2위 및 프랑스 음악해석 특별상, Jaen 국제콩쿠르 2위, Porto 국제콩쿠르 4위 및 현대음악해석 특별상, Luis Sigall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타케미츠/비의 나무 소묘 2번

바흐-부조니/사콘느

스크라빈/'시(Poem)' 작품 3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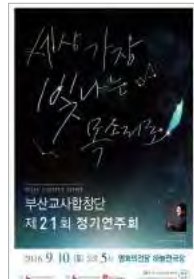
부산교사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세상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일 시 | 9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교사합창단 010-3170-5817



전국 교사합창단 중 최고의 음악적 기량을 자랑하는 부산교사합창단의 21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6년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 연주회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멋진 합창의 하모니를 선사해온 부산교사합창단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최고의 합창, 그리고 이를 통한 스스로의 음악적 개발과 성취, 창의적 교육에 목적을 두고 합창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창작가곡/산유화(조혜영), 가미귀 검다하고(김지영), 하늘이 사람을 낳아(백현주)

세계의 노래/포카레카레아(인도네시아 민요), 바람의 빛깔(포카훈타스 ost), 세파 타페로(남아프리카 소토 민요) 등 수록

• 지휘/김강규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 010-4842-6688

지난 1998년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가 부산을 대표하는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단한 '부산리틀스트링스오케스트라'를 2008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균형감 있게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동아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사)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인코리아안우스오케스트라 총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용문이 지휘하고 동성초등학교 5학년 연하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제4회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 9월 11일 일요일 오후 6: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학생연합오케스트라 010-9984-7169



지난 2014년 3월 음악 교육을 통해 정서 함양과 단체활동의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권 학생들로 결성된 연합오케스트라인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2014년 6월 첫 정기연주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부산학생연합 오케스트라는 매년 1~2회 이상의 재능기부 연주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문화소외계층 시민들이 무료로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기획, 마련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수익금 역시 전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된다.

• 총괄기획/박병권

• 지휘/김대영

• 테너/허동권, 전철우

• 바리톤/민정식

**전 NHK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요코카와 세이지와 함께하는
Playres Becs 특별연주회**

일 시 | 9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Playres Becs 010-4998-5323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4년 결성된 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국내 유일의 클라리넷 솔로리스트 단체 '플레이어즈 벡(Playres Becs)' 특별연주회. 전 NHK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이자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요코카와 세이지(Yokokawa Seiji) 초청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부산 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로 활동했던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과의 합동 협연 무대로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멘델스존 '두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협주곡'이 연주되며 클라리넷 8중주로 편곡된 바르톡 '루마니아 포크 댄스',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등 클라리넷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곡을 만날 수 있다.

**마노목관5중주 제2회 정기연주회
Shall We Dance**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마노목관5중주 010-3320-3525

부산, 경남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우영, 오보이스트 박선영, 클라리네티스트 김성진, 호른리스트 최희진(객원), 바순니스트 김영두로 결성된 마노목관5중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5년 창단된 마노목관5중주는 쿼텟뿐 아니라 듀오, 트리오, 콰르텟, 그리고 각 연주자들의 솔로 연주까지 폭 넓은 구성과 레퍼토리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빼어난 선율로 사랑받고 있는 관현악곡,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목관5중주만의 매력으로 색다르게 편곡, '같은 음악,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A. 말콤/목관5중주를 위한 Three Shanties 비제/허버너라 & 카르멘 판타지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거쉰/목관5중주와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 인 블루
• 게스트/피아니스트 진성민

**동래문화회관 10시 브런치 토크콘서트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라보엠'**

일 시 | 9월 20일(화), 27일(화), 10월 5일(화)
오전 10: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2016년 상주단체인 드림문화예술 오페라단과 함께하는 '2016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더 재미있는 오페라 관람을 위해 해설을 곁들인 갈라무대로 진행되는 '오페라 속 사람 사는 이야기'는 7월 '토스카', 8월 '나비부인'에 이어 9월에는 '라보엠'을 세 차례에 나누어 들려준다.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로 꼽히는 '라보엠'은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루돌포, 철학자 코르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루돌포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1896년 2월 1일 토리노의 레조극장에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됐다.

**2016년 꼬레아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일 시 | 9월 20일-21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문의 | S석 6만원, A석 4만원
학생 2만원(초중고생 단체 50% 할인)
꼬레아 오페라단 010-2400-5271



지난 2006년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부산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부산 오페라계에 화제를 모은 꼬레아오페라단의 2016년 정기공연.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소설을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은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10편의 오페라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멜랑콜리한 선율과 극적인 오케스트라가 매력인 작품이다.

- 단장/안상철
- 총감독/김길수
- 지휘/오창목
- 연출/박용민
- 출연/양승엽, 정혜리, 안상철, 박소연, 김정대, 서훈정, 박소정, 장진웅, 박수환(20일), 김화정, 김현애, 김중화, 조희정, 박기범, 최화숙, 김조은, 장진웅, 박수환(21일)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카메라타앙상블의 가을 클래식
여행-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그리그의 밤**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9월 무대 '카메라타앙상블의 가을 클래식 여행'. 지휘자 윤상운이 이끄는 카메라타앙상블이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등 가을의 정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실내악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3번 중 'Air'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KV.525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KV.138 그리그/홀베르그의 모음곡 작품 40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9회 프롬나드 콘서트
'실내악으로의 초대 1'**

일 시 |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9월 무대. 9월부터 진행되는 '실내악 시리즈' 첫 무대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손은혜, 비올리스트 정희경, 첼리스트 박예리나, 클라리네티스트 손기영이 출연해 하이든, 베토벤, 보로딘, 모차르트 등 아름다운 클래식명곡을 실내악 앙상블로 들려준다.
• 예술감독/오충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7인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가을의 서정 그리고 내 마음의 정원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1

...

동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마자떼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김한나,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설은경, 이태리 A. Vivaldi 국립음악원과 Civica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및 오페라과를 졸업한 테너 서훈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Claudio Abbado 시립음악원을 졸업한 바리톤 오세민, 고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이태리 로마 국제아카데미, 노르마 일세미니리노 시립아카데미, 이태리 테라모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베이스 양종근,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은실, 김관 등 7인의 예술가가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프로그램

나, 그리고 당신의 삶/강 건너 봄이 오듯, 동심초, 마음, 그리운 마음
사랑에 대한 고해/Por una cabeza, 사랑의 기억, 그대에게 내말을 전해주세요
그 위대한 열정/방금 들린 목소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무도 잠들지 말라

박필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반주연구회, 부산피아노협회, 한국피아노학회, 독일가곡연구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피아노음악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필은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윈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뉘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필은은 그동안 수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윈스터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부산시포니에타,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 부산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동래문화회관 초청 '가족음악회' 실내악 연주, 다수 독창회 및 독주회 반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사랑의 슬픔
부조니/사콘느 라단조
그리고/그대를 사랑해 작품 5-3 등 수록
•해설/황지연

제2회 A club 정기 연주회

일 시 | 9월 25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진일 010-2881-8764

...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젊은 관악 연주자들로 결성된 A club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대중들이 음악과 좀 더 쉽게 친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창단한 A club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경쾌한 관악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블라디미르 페스킨/트럼펫 협주곡 제1번 1악장
메르카탄테/플루트 협주곡 마돈조 1악장
헨델/오페라 '리날도' 아리아
소이치 고나가야/'Dream' 중 3악장, 4악장
로드리고(김기열 편곡)/아랑쥬스 협주곡 등

- 음악감독, 지휘/안성진
- 트럼펫/김형진
- 플루트/이슬



바리톤 이규원 귀국 독창회

일 시 | 9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규원 010-2429-4316

...



미국 리베라(Libera) 오페라단 단장이자 한양대 겸임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규원 귀국 독창회. 한양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을 배출한 AVA에서 아티스트로 활약하기도 한 이규원은 미국 켈름센터에서 푸치니 오페라 '에드가'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미국과 이태리, 한국 등에서 40여 편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3번의 독창회와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토스티/이상, 슬픔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
브람스/4개의 성경구절 작품 121
포레/3개의 노래 작품 23
무어/가을별처럼 따스하게 등 수록
•피리/김지윤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그리그 소나타 전곡 연주 '노르웨이에서 온 축전'

일 시 | 9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백재진 010-3325-8729, 512-4295, 890-1318

...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비루투오조 앙상블 리더로 활동 중인 백재진은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코리아시포니에타와의 협연을 비롯 중국 천진교향악단,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심양국제교류음악회, 예술의전당 Nomos Trio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그리그가 작곡한 3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김선영

2016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제45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IV

일 시 |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도 활동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45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음악과 및 고신대학교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비바체

임버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다니엘S 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네 번째 무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4번과 7번 외에도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 작곡모임 향천회 사무국장, TDC 자선 엔젤 앙상블 작, 편곡 및 해설자로 활동 중인 작곡가 백주희 신작 '영-도개교(2016)'를 들려준다.

제54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Violin & Piano '향연(饗宴)'

일 시 | 9월 27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그라모폰 매거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음악가로 엄청난 스타미나를 이끌 어내며, 그 어떤 상황에 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쇼지 사야카 듀오무대로 펼쳐지는 제54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손열음은 지난 2011년 제1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았으며, 쇼지 사야카는 지난 1999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일본인 최초, 최연소 1위에 수상한 바 있다.

• 예술감독/김원명

Play 연극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6월 23일(목)~9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9/15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지와 이별 후 봉필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공하고 결혼한 수지는 평범한 유부녀로 지내다 우연히 봉필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에 잠시 머무르게 된 봉필이 수지에게 연락하면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발칙한 로맨스'는 10년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를 잉글리한 상상력과 포복절도한 대사로 그려낸 작품이다.

연극 '최면'

일 시 | 6월 24일(금)~9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9/15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지난 2014년 여름, 부산과 울산에서 성공적인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며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연극 '최면'. 2016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최면'은 친구의 악흔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그녀를 안고자 최면에 빠지게 되고, 11명의 희생자들을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인격을 그녀에게 주입하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최면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이코패스 공포스릴러극이다.

• 작, 연출/박정인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 7월 8일(금)~10월 3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중, 고, 대학생 50% 할인)
 문 의 | 디오르골엔터테인먼트 664-7880

단탄한 구성과 해학을 담은 강력한 웃음코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폭소코미디극 '라이어'. 워블던에는 메리, 스트리트햄에는 바바라를 두 부인으로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는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의 완벽한 스케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만 18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라이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게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뮤지컬 '사랑할까요?'

일 시 | 8월 11일(목)~9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문화각 1600-1602



머레이 스위스갈의 부조리 코미디극 '타이피스트'를 흥겨운 음악과 배우들의 코믹스런 연기로 재탄생 시킨 뮤지컬 '사랑할까요?'. 타이피스트 이대리와 고상하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 초년생의 삶을 시작한다. 출근하면 티격태격하며 직장 동료와 애정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를 하는 두 사람, 그들이 보내는 하루는 평범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우정과 사랑 사이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경쾌한 뮤지컬 음악과 함께 풀어낸 창작뮤지컬 '사랑할까요?'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같이 일하는 주인공들의 일상을 통해 화살처럼 지나가는 덧없는 시간과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쓴맛과 좌절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특강'

일 시 | 8월 13일(토)~10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슬로에게는 간접적 연애 체험을, 커플에게는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로맨틱 코미디극. 막이 오르면 한 강사가 연애기초학을 시작으로 연애특강에 들어간다. 특강의 예를 들자 대학선배로 관계인 종호와 수민, 클럽에서 처음 만난 광웅과 리나 등 두 커플이 등장하고 강사는 이 두 커플을 통해 남녀의 연애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유익한 실전 연애 테크닉을 전수하는 연애박사의 명강의가 펼쳐지는 '연애특강'은 각 장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애의 에피소드를 통해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연애 비법을 전수해준다.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

일 시 | 8월 25일(목)~10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9/15일 오후 7:00, 월요일, 10/4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4년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 2탄 무대.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는 영혼들의 이르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시터를 운영하며 그의 걸을 떠난 짝사랑녀 정운을 그리워한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영혼들의 평범한 의뢰를 해결하던 오상우에게 뜻하지 않은 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귀신이 보이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휴머니즘 가득한 서사로 풀어낸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는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2016 극단 해풍 기획공연

왕은 죽어간다

일 시 | 8월 26일(금)~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액터스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학생 1만 5천원

문의 | 극단 해풍 070-7346-7146, 611-6616



지난 2011년 '부산에서 부는 해학과 풍자의 바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단한 후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에 힘쓴 젊은 극단 해풍과 부산연극계를 지켜온 원로연출가와 함께 하는 2016 극단 해풍 기획공연 첫 무대 '왕은 죽어간다'.

부드러운 연출가 이상규가 연출을 맡은 부조리극의 걸작 '왕은 죽어간다'는 느닷없이 죽음을 선고받은 한 인간이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어린 시절로의 회귀 등을 거쳐 결국 죽음을 수용해 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 작/이오네스코 • 역/오세훈
- 연출/이상규
- 출연/이상우, 안성혜, 류현희, 백민철, 윤용숙, 김수영

제2회 NASO페스티벌

일 시 | 9월 1일(목)~11월 27일(일) 나다소극장

문의 | NASO페스티벌 사무국
010-9237-9390



13개 극단이 참가하는 이번 제2회 NASO페스티벌은 청년연극인, 신진연극인들의 치열한 데뷔전 무대로, 참가공연 외에도 버스킹, OST콘서트, 워크숍과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차별화된 연극축제를 선사한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마이 디어 헬렌'

9월 7일(수)~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삼중고의 헬렌이 שלי라 선생님을 만나 언어에 눈뜨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며 가슴속을 채우던 시절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세 장의 에피소드로 담아낸 2인극.

- 연출/주혜자 • 출연/진선미, 이효림

극단 리셋 '봄이여, 오라'

9월 22일(목)~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1919년, 조선독립신문이 창간된다. 항쟁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한 자들은 모두 체포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던 병중은 신문발행을 위해 힘쓰기로 결심하고,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비밀리에 독립을 위한 신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 연출/고다솔

극단 B컴퍼니 '달에서 떨어진 별'

9월 29일(목)~10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어릴 적부터 달에 가고 싶어했던 소년 한별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우주비행사가 되어 달로 향한다. 하지만 우주선의 고장으로 달에 남게된 한별, 그리고 달에 떨어진 3개의 별, 사랑별, 눈물별, 이별은 한별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준다. 왜 별들은 한별의 기억을 되찾아주려 하는 것일까?

- 연출/이인창 • 음악/강지현 • 안무/강경현

예술집단 VON '날아라 병아리(내 안의 내면아이와 만나기)'

10월 6일(목)~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불안, 부정적 감정, 끊이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어른A는 우연히 병아리와 노는 아이를 보고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린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인 소년A는 어른A의 실제 내면을 드러내준다. 어른A는 소년A와 아이A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

- 연출/이유경 • 출연/변규림, 강용기

극단 고도 '밤줄'

10월 12일(수)~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창고에 매달린 밧줄에 아들이 목매는 것이 소원인 노망난 노인, 노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5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

- 연출/유지수

극단 배우창고 '나는 채플린이 아니다'

10월 20일(목)~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1950년, 채플린을 닮은 젊은 남자는 자신의 이상처럼 양복점에서 옷을 수선했지만 허리사이즈가 커서 바지는 못 찾고 긴 상의만 입고 집으로 향한다. 다음날 밤, 무수히 떨어지는 별에 맞아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그의 가족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과연, 그는 바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 연출/박훈영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필경사 바틀비'

10월 27일(목)~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19세기 말 뉴욕의 증권가에서 변호사 '나가 만난 필경사 바틀비'에 대한 이야기.

- 작, 연출/최은영 • 안무/함훈옥 • 음악/권은하

극단 H.O.W & 그리고 그리다 '꽃-벼랑 끝의 운명'

11월 3일(수)~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오나라의 급승으로 인해 전투에 패한 관우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각자 스스로의 선택을 맞든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 연출/관상우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11월 10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1945년 말, 김태수는 에이코와 자신의 아이를 친구 이진식에게 맡기고 사라진다. 그 후, 이진식은 그녀와 아이를 김태수의 누이에게 맡기고 에이코는 남편 김태수를 만나지만 아들 정호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듣게 되는데...

- 연출/강성우

극단 팻브릿지 & B급로타리 '원스오퍼타임 인 조선'

11월 17일(목)~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7:00

193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전쟁물자보급과 수탈이 가장 심했던 조선, 경성의 한 무기공장 김안수 집안의 장남 김장구는 한 남자로부터 공장의 무기를 빼앗고 혁명을 주도하자는 제안을 받는데...

- 연출/김경민

극단 더블스테이지 '나비'

11월 24일(목)~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청나라의 잔인한 만행이 조선 땅을 헤집고 지나간 1638년 3월 어느 날, '오랑캐에게 정절을 더럽힌 한향녀와의 이혼을 허가해 달라'는 상소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고심하던 인조는 궁여지책으로 묘안을 짜내는데...

- 작/김지숙 • 연출/김동민

연극 '헬로 고스트'

일 시 | 9월 2일(금)~10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행복을주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피에로 1800-9727



웃기는 유령들의 배꼽 빼는 반상회 코믹극 '헬로 고스트'.

연극 '애자', '연애특강', '염방웬수', '도둑놈다이어리' 등 대학로 흥행연출가 장도현의 신작 '헬로 고스트'는 이승이 아닌 저승을 소재로, 콘서트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해 목숨을 잃은 가수 한신화, 나이트클럽에 불이나 댄서를 구출하려다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 클럽 DJ 마봉출, 비행기 사고로 자신의 왼팔을 잃고 스스로 자살을 한 피아니스트 성미란, 그리고 이들 유령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저승사자 등 개성만점 유령들이 등장,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들만의 좌충우돌 코믹 헤프닝으로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 작, 연출/장도현
- 출연/이슬, 김범수, 전혜리, 김정환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선정작 뮤지컬 '넌센스'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지난 1991년 한국에서 초연된 후 25년간 총 9천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최다 관객, 1천만 관객 동원, 매 공연 관객 점유율 70% 이상 달성 등 대기록을 세운 코믹 뮤지컬 '넌센스'.

뉴저지 호보컨 성 헬렌학교에서 요리사 줄리아 수녀가 만든 아이스프림을 먹고 무려 52명의 수녀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죽어버린다. 다행스럽게도 외출 중이었던 수녀들은 이들의 장례비용을 모으기 위해 수녀원에서 가장 재능있는 수녀들을 모아 자선공연을 계획하고, 5명의 엽기발랄 수녀들의 배꼽 잡는 장례비 마련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런 무대는 실 새 없는 수디와 유머,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로맨틱 판타지 달맞이고개 : 달을 기다리는 연인

일 시 | 9월 23일(금)~11월 20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6:00,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MBC 삼주아트홀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6만원

문 의 | BAH 미디어 626-0300



해운대 달맞이고개를 스토리텔링한 이야기에 전통예술과 첨단 미디어아트를 결합시켜 부산지역 특화공연으로 탄생시킨 '달맞이고개 : 달을 기다리는 연인'은 한없이 맑고 투명한 여자 바다(海)와 섬세하고 배려 깊은 남자 달(月), 거칠지만 한 여자를 사랑하는 강인한 남자 구름(雲), 지나친 질투로 세상을 뒤집고 마는 남자 태풍(風)을 등장시켜 그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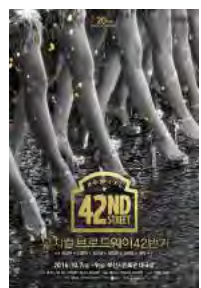
GOD 멤버인 가수 김태우와 뮤지컬 배우 손준호가 주인공인 '달'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연출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판타지극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9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 최초 국내 초연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무대.

국내에서는 지난 1996년 초연 당시 7만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듬해인 1997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기술상, 특별상, 1998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 2013년 한국뮤지컬대상 앙상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일국, 이종혁, 최정원, 김성경 등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무대는 특히 20주년을 기념해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연출팀인 레지나 알그렌을 영입, 정통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의 진수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Dance 무용

2016 정신혜무용단 창작춤페스티벌 VI 화화화화-바람을 만나다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00, 3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정신혜무용단 999-5301



전통의 보전과 계승, 전통춤 레퍼토리 개발뿐 아니라 한국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컨템포러리 창작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춤언어를 창조해오고 있는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레퍼토리 여섯 번째 무대 '화화화화-바람을 만나다'.

2015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2015 대한민국무용대상 Best7에 선정된 작품으로, 특히 송몽주 작가의 설치미술과 독일 무용가 길레모 루이스 호르타의 보이스 무브먼트, 조명,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 예술감독, 안무/정신혜
- 대본, 연출/조주현
- 작곡/임진영

2016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아시아춤문화연구소 010-3278-9194



아시아춤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One Asia in Dance)' 2016년 무대.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는 아시아의 전통과 예술적 감수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춤의 미래를 읽기 위해 마련되는 무대로, 진주, 거제, 광주, 부산을 순회하며 아시아 각국의 전통 민족춤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문화강좌, 국제학술포럼,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9월 3일 폐막식을 겸해 열리는 부산 공연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 Mawar Budaya Studio Dance, 중국 쿤밍시 가무단, 몽골, 타지키스탄 Bazmoro Dance ensemble, 인도 카타칼리재단에서 참가한 민족춤 전문 공연단의 공연과 특별초청으로 아프리카 세네갈 African Arts Productions의 민족춤을 감상할 수 있다.

2016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

Body Concert

일 시 | 9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 999-5363



안무가 이태상을 중심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의 2016년 창작무대.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는 현대무용의 새로운 움직임을 찾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에서 한국의 현대무용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무용공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97년 '달의 흐름'을 통해 데뷔한 후 자신만의 독특한 세련됨과 간결미, 탄탄한 서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안무가 이태상은 이번 무대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담은 피카소의 동명의 작품을 춤언어로 표현한 '게르니카'와 사람들의 질곡과 애환을 곳이라는 제의의 형상을 빌려 풀어낸 '컨템포러리 곳' 등 두 작품을 선보인다.

안무가 이태상을 중심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의 2016년 창작무대. 이태상 댄스 프로젝트는 현대무용의 새로운 움직임을 찾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에서 한국의 현대무용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무용공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김진홍 전통춤 보존회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부산예술회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상설무대.

9월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한국춤계의 원로춤 김진홍 선생이 이끄는 김진홍 전통춤 보존회의 무대가 펼쳐진다. 김진홍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제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시무형문화제 제14호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로, 그동안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장,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제7회 부산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제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시무형문화제 제14호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로, 그동안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장,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제7회 부산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산조춤, 동래한량춤, 검무, 지전춤, 승무, 살풀이춤, 조상굿, 영남입춤
•출연/김진홍, 김연선, 최윤자, 강미선, 지영숙 외

Movie 영화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일 시 |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전화 예약 필수)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우수공연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실황 영상은 물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 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얘기를 담아낼 스크린 콘서트 9월 상영회에서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순례자',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세계적인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콘서트 실황영상을 상영한다. 이번 실황영상에는 백건우가 연주하는 스크리본 '24개의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을 감상할 수 있다.

2016년 영화의전당 무성영화 기획전

찰리 채플린과 두레라움 윈드 오케스트라의 만남

일 시 | 9월 7일(수), 21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무성영화시대 최고의 희극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와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음악이 만나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2016년 영화의전당 무성영화 기획전 '찰리 채플린과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의 만남'.

'황금광시대', '시티 라이트', '모던 타임즈'로 만개하기 직전인 찰리 채플린의 보석 같은 단편 컬렉션을 통해 무성영화의 빛나는 전성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상영회에서는 7일 '양치바른 쪽', '하루의 행락'이, 21일 '유한계급', '봉급날'이 상영된다.

•지휘, 해설/정두환



Event 행사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과 책 사이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이다.

'문화유목민' 정두환은 지난 17여 년간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과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 및 진행하였고, 합창단,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 평론,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음악 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6일(573회)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13일(574회) 서열중독
20일(575회) 심리정치
27일(576회) 라면을 끓이며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0강 하이든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평론가 곽근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음악' 10번째 강좌.

이번 강좌에서는 18세기 말엽 유럽 음악계의 여러 모습들과 고전음악의 건실한 주춧돌을 깔았던 요제프 하이든의 음악세계를 조명한다. 계몽주의의 이상인 훌륭한 인품, 경건함과 친절을 갖춘 동시에 이방을 가진 경영자였고 능숙한 사업가였으며, 진지함과 유머를 모두 소화했던 하이든은 고전주의 음악의 규범을 만든 위대한 작곡가로, 고전시기를 대표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렉처콘서트]

일 시 | 9월 6일(화)~12월 6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20만원(13주, 해설집 제공)/무료
문의 | 최정욱 010-3853-6634



월드뮤직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설을 시도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기행' 9월 강좌.

[프로그램]
6일 켈틱(Celtic)음악-슬픔이 아로새겨진 신비로운 아일랜드 음악
20일 쿠비음악-세계 리듬의 보고, 비엔나 비스타 소설 클럽의 나라
27일 집시(Gypsy)음악과 플라멩코-유랑민족의 열정과 절규

• 기획 및 해설/최정욱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5강 베네치아의 화가 티치아노

일 시 |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65회 시낭송회

일 시 | 9월 27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새호재병원 강당

문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부산시민회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추억의 영상음악회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제25회 부일영화상

일 시 |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00
벡스코 오디토리움

문의 | 부산일보 문화사업국 461-4432~5



부산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올해 공개 시상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25회 부일영화상. 지난 1958년 대한민국 최초 영화상으로 출발한 후 TV보급과 영화산업 쇠퇴로 35년간 중단되었다가 2008년 새롭게 부활한 부일영화상은

심사위원단 위촉과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일부 영화팬 초청형식으로 치러진 부일영화상은 올해 장소를 벡스코 오디토리움으로 옮겨 관객 2천여 명을 초대하는 지역 영화축제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일보 홈페이지(busan.com)을 통해 오는 9월 6일부터 선착순 2천여 명에 한해 사전 신청(1인당 2매)받는다. 또한, 본선 진출작 중 독자가 뽑는 '독자심사대상' 투표 역시 9월 6일부터 부산일보 홈페이지(busan.co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Display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미지의 탐사 그리고 발견'

일 시 | 6월 17일(금)~9월 18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홀

입장료 | 일반 1만 3천원, 초중고생 1만원, 유아(36개월 이상) 8천원

문의 |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시사무국 642-5747

갤러리 아인 여름 기획전 공예디자인 작품전-윤현진, 이정훈

일 시 | 8월 4일(목)~9월 22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각종 디자인페어에서 참신함을 인정받고 있는 윤현진, 이정훈 두 젊은 공예디자이너의 가구, 조명, 소품 등을 전시.

'최영욱'展

일 시 | 9월 1일(목)~10월 14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조서인 개인전 '꽃을 단 호랑이'

일 시 | 9월 5일(월)~9월 11일(일)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강인함으로 대표되는 야생의 호랑이가 아닌 맹수의 본능을 잃은 채 사육되는 호랑이를 해학적으로 표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의 관념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풍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서인 개인전.

을숙도문화회관 9월 기획전시 고유정의 '현대공예전' -한지, 민화, 천연염색의 만남

일 시 | 9월 19일(월)~9월 30일(금)

을숙도문화회관 제2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김시영, 김지원 2인전 '꽃과 와이셔츠'

일 시 | 9월 19일(월)~9월 25일(일)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현재 신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시영, 김지원 작가의 2인전.

타워아트갤러리 기획 2016 '自然의 音, 香' 展

일 시 | 9월 20일(화)~9월 30일(금)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행복한 나들이'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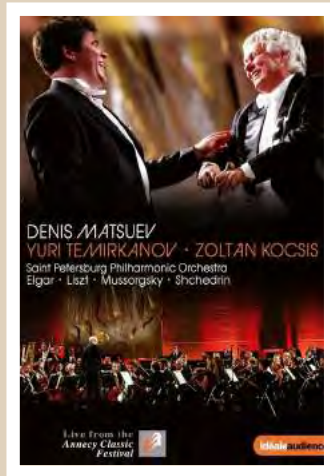
일 시 | 9월 29일(목)~10월 7일(금)

BNK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부산의 전문 미술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자이자 동시에 각 전공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작가들의 모임인 '행복한 나들이회'의 작품전.

RECORD



❖ 2014년 앙시 클래식 페스티벌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졸탄 코치쉬, 유리 테미르카노프(지휘)

▶ 앙시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화려한 러시아의 밤

2014년 8월 프랑스 앙시에서 열린 클래식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DVD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과 린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수록한 2013년 영상물에 이은 두 번째 영상물 발매이다. 이번에도 역시 음악감독인 데니스 마추예프와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의 협연 및 콘서트 레퍼토리가 담겨 있는데,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죽음의 무도'에서는 졸탄 코치쉬가 지휘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지휘를 맡아 연주자의 다채로움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리스트의 '두 개의 협주곡'에서 마추예프가 보여준 아크로바틱처럼 기계적이고 악마적인 동시에 전지전능한 연주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의 환상적인 사운드와 귀족적인 에너지감을 발산하는 '전람회의 그림' 또한 전율적으로 이 명예로운 악단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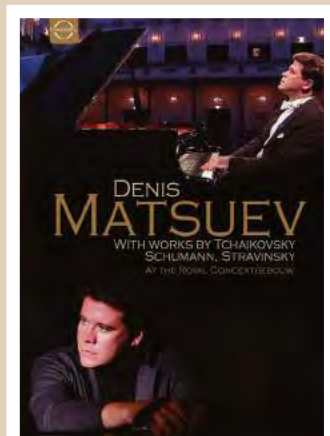


❖ 오랑주 고대극장의 정명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실황

정명훈(지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니콜라스 안젤리치(피아노)

▶ 오랑주 고대극장의 정명훈과 라디오 프랑스 필, 아르헤리치와 안젤리치의 뜨거운 호흡!

2015년 7월 10일 오랑주 고대극장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2000년부터 15년 동안 이뤄온 정명훈과 라디오 프랑스 필의 케미스트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국 태생의 니콜라스 안젤리치가 협연한 프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P.61', 생상 '교향곡 3번 오르간'이 메인으로 수록되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야외극장의 방벽을 음향판 삼아 환상의 울림을 선사하는가 하면, 야밤의 분위기와 지휘자의 표정을 환상적으로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은 116분의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 선보인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와 비제 '카르멘' 서곡은 깊어가는 밤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



❖ 로열 콘서트허바우에서의 데니스 마추예프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 러시아의 거인, 마추예프의 첫 리사이틀 영상

'건반 위의 거인'으로 불리며 21세기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니스 마추예프, 그는 장신의 거구답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압도적인 위압감과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테크닉, 인간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스피드와 지구력, 다이내믹을 구사하는 괴물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성에 비해 영상물은 거의 없었는데, 이 2015년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허바우에서의 솔로 리사이틀 실황을 통해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 메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리아도프의 '뮤직 스너프박스', 차이코프스키의 '메디테이션', 스크랴빈의 '연습곡 작품 8 제12번', 자작곡인 재즈 즉흥곡으로 이어지는 앙코르까지 피아노 연주의 신세계를 보여준다.

BOOK

❖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유몽인, 최익현 외 지음 / 돌베개 / 372p / 1만 8천 원



여행 책도 쓰이고, 개인 SNS에서는 여행 이야기가 넘쳐난다. 책자에는 정보가 가득하고, 개인 여행담에서는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마음껏 자랑도 한다. 이런 글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행문을 권한다. 우리나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대 여러 문인들의 글을 편집한 정원림의 <동국산수기>와 기타 몇 편의 산수유기 수작들을 저본으로 삼은 책으로, 조선 팔도의 명산 20곳을 담고 있다. 편역자인 전송열, 허경진은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글을 재배치했다. 영조 때 제작된 <해동지도>를 도판으로 사용해 이해를 돕는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 선비들이 산수를 즐겨 찾은 이유는 성현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고 맹자는 호연지기를 느끼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라고 했다. 선비가 자연을 그대로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나 선비가 자연에게 배워서 하나가 되는 것 둘 다 자연과 내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었다. 조선 선비들의 글에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이 다시 살아난다.

❖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

조현영 지음 / 다룬 / 367p / 1만 6천 500원



클래식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은 책이 나왔다. '어렵다'고 말해주니 뭐든지 물어보고 싶어진다. 조현영 씨의 '피아노 토크' 공연 장면을 살짝 엿보자. 그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곡 한 소절을 연주한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그 곡의 작곡자와 연주자의 인생을 소개한다. 그 공연이 책에 담긴 것이다. 클래식 관련 책은 무수히 출간돼 있다. 그 많은 책들이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니 알 수 있겠죠?"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고도 클래식을 모른다면 교양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하지만 솔직히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음악도 아니고 어떻게 클래식이 쉽겠는가. 이 책은 클래식은 '어렵다' 혹은 '낯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저자는 클래식은 사람이고 사랑이며, 한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라고 말한다. 그러니 '낯설어서 어렵다면, '익숙한' 클래식부터 먼저 찾아보기를 권한다.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접했던 클래식을 먼저 소개하며 문을 열어준다. 100여 곡의 클래식 영상이 QR코드로 수록돼 명연주 장면과 해당 클래식음악이 사용된 광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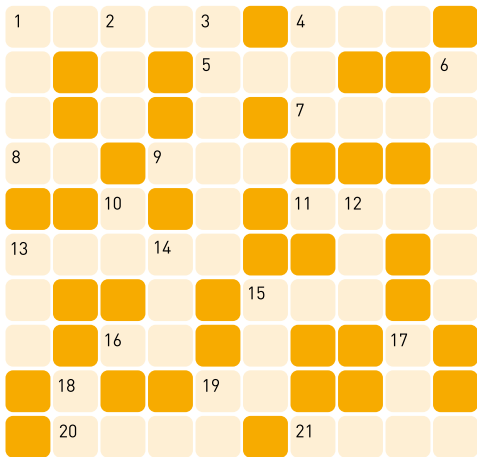
❖ 감천문화마을 산책

임희숙 지음 / 해피북미디어 / 184p / 1만 3천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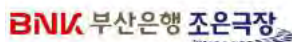


'한국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부르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이 근사한 이름은 사실 마을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진짜 모습을 어떨까. 소설가 임희숙 씨가 직접 마을을 탐방하고, 이 마을을 지키고 가꾸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감천마을이 오늘날 감천문화마을로 변화하게 된 진정한 원동력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인공적 관광지가 아닌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서의 감천문화마을을 조명하며, 그 고유한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인문학적 마을 보고서다. 태극도인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루었던 마을, 한국전쟁 당시 이주해 온 피난민들의 거주지였던 마을이 오늘날의 감천으로 변했다. 이웃의 햇볕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전망이 좋도록 집을 지은 배려, 시간의 무게를 이끼로 품고 있는 빼빼물 쌓아올린 벽돌 계단, 낡아 버릴 법한 대야에 심겨진 꽃,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마을 안으로 들어가 골목길을 거닐어보면 지난 세월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관광객이 아닌 삶의 터전인 감천문화마을에서 지나온 우리 모두의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지나호 정답

웅 산 피 가 로 의 결 혼
 티 티 카 카 렐 불
 아 소 크 라 테 스
 아 고 라 이 위
 저 맥 베 스 아 니 리
 씨 가 누 토
 황 진 이 피 라 미 드
 공 룡 버 세 징
 사 마 린 린 먼 로
 뮤 지 쉐 초 지 먹

가로열쇠

- ① 재클린 뒤 프레 이후 가장 대단한 영국 현악기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럽 3대 챔버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챔버 오케스트라와 10월 1일, 2일 양일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음예회와 만나고 있다.
- ④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국내 근대미술의 대표 화가. 해방과 전후시대의 이름을 진솔하게 표현했으며 사인화법을 수용, 한국 근대미술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 대표작으로 '흰소', '황소', '두아'와 '물고기'와 '개' 등이 있다.
- ⑤ 39편의 오페라, 종교음악, 실내악, 가극, 기악곡 등을 작곡하면서 '이탈리아의 모차르트라 불리는 작곡가.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으로 '세벨리아의 이별사', '도둑까치', '알제리의 여인', '엘리펀탈' 등이 있다.
- ⑦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을 무대로 활동한 가상의 탐정으로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 ⑧ 신라의 수도.
- ⑨ 그리스의 수도로, 서구 문명의 발생지이자 고전 문명의 많은 지적, 예술적 사상이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 ⑩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⑬ 미국 네바다 주 남동부 사막 가운데에 있는 도시. 미국에서 애플 랜트 시터와 함께 도박이 허용된 유일한 도시로, 카지노가 많아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불리운다.
- ⑭ 세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로, 얽혀 있던 사랑의 갈등이 해결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작품. 작품명인 000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이 지난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일로, 유럽에서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러 행사와 여흥을 벌이는 전통이 있었다.
- ⑮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⑯ '작장인들의 교과서'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윤대호 작가의 웹툰. 비정규직과 인턴 등 초보 사원들의 처지를 대마의 삶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비독용어 '00'에 빗대어 표현했다. 지난 2013년 모바일 단편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듬해인 2014년에는 드라마로 첫 선을 보이며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켰다.
- ⑰ 붉은 풍차란 뜻으로 1889년 파리세계박람회가 열렸을 때 맨스홀로 문을 열었다. 매혹적인 프렌치 캉캉 춤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1914년 화재로 전부 타버렸다. 1918년 뮤지컬로 개작했으며 맨스홀은 별도로 그 옆에 세웠다. 현재 뮤지컬은 영화관으로 탈바꿈했으며, 맨스홀에서는 인기 연예인의 쇼가 공연되고 있다.
- ⑱ '장자(莊子)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이라는 뜻으로, 물이 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또는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세로열쇠

- ① 원형은 무구정광대0000. 1966년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의 해체 복원 공사 중 석탑 내부에서 발견된 불교 경전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로 704년~75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보 126-6호로 지정되어 있다.
- ②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 12월 말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에스파냐어로 '어린아이가(예수)를 뜻하는 000라 부르는 이 현상은 오늘날 장기간 지속되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 일컫는다.
- ③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내준 것으로서 인간에게 첫 문명을 가르친 저본인.
- ④ 머리글자, '임구', '사직'을 의미하는 라틴어 initials가 어원으로, 약식 사명예소주의 피시로, 또는 약호 등으로 쓰인다.
- ⑥ 프랑스 바움의 동화를 원작으로 만든 판타지 뮤지컬 영화.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 ⑩ 삼 곁집의 인쪽에 있는 인피섬유(靑皮織)에서 뽑은 실로 짠 직물. 한민족이 한반도로 이주할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짐작되며, 우리나라에서 면(綿)이 일반화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대표적 마직물은 곡식의 돌살(斗)과 인동포인데, 이들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⑫ 어원은 알 수 없으며 '옹해', '영해', '여해', '예해' 등 외마디소리가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불린다. 보라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시절인 초여름에 보라피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불리면서 '보라피자 소리' 또는 '타작소리', '도리깨질소리', '타박'이라고도 한다.
- ⑬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기도 한 푸치니 오페라로, 예술과 가난한 삶 속에서 온갖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그린 작품이다.
- ⑭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으로, 우리나라 최서단에 있는 섬
- ⑮ 해(日), 달(月), 산(山), 내(川), 대나무(竹), 소나무(松), 거북(龜), 학(鶴), 사슴(鹿), 불로초(不老草) 등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
- ⑰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페스트'는 한국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문화대통령' 000의 주옥같은 음악이 만나 화제가 된 작품이다.
- ⑱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우나 주연의 결자 영화.
- ⑳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는 Miss와 Mrs를 대신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이름이나 성 앞에 붙여 사용하는 단어.

8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노혜원(서구 충무대로)
 윤영식(남구 석포로)

조은극장 김호은(서구 대영로)
 박용진(동래구 시실로)
 박지원(북구 금곡대로)
 이동환(동구 중앙대로)
 황영은(동래구 복천로)

공간소극장 김민지(수영구 수영로)
 김재은(동래구 총렬대로)
 박정우(해운대구 장산로)
 이주영(해운대구 선수촌로)
 유지훈(금정구 금강로)

큰집식사관 김은미(사상구 사상로)
 박은경(부산진구 엄광로)
 윤주원(서구 구덕로)
 이성원(사상구 냉정로)
 정혜경(동래구 복천로)

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2016년 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할 부산 지역 내의 초·중·고교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공연명	모집부문	비고
2016 독도의 날 기념『독도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및 제30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부산지역 초·중·고교 합창단	신청서 및 악보제출

2. 공연일

2016년 10월 25일(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6년 9월 1일(월)~9월 9일(금) 18:00까지

접수처 : 1) 전자메일 : thjang77@daum.net
 2) 방문 및 우편 : 부산시 남구 유엔 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내 시립예술단 사무국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 프로필(5줄 기준으로 작성), 합창단 사진, 지휘자 사진, 반주자 사진, 연주 곡명 및 악보제출(공연 10분 이내)
 ※ 단, 연주 작품 중 1곡은 독도를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함.

4.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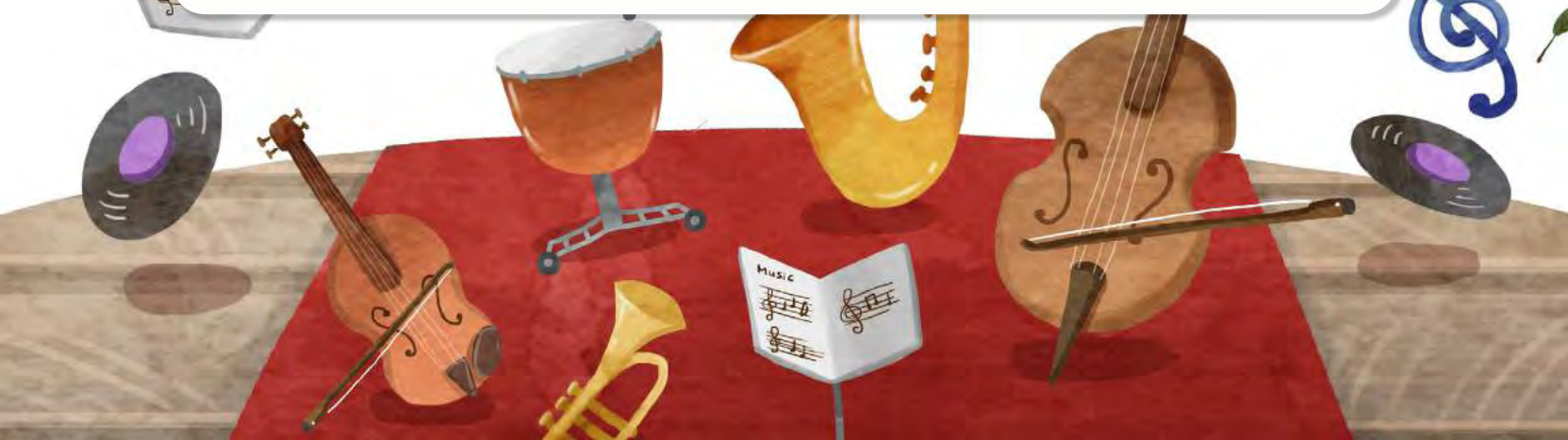
심의일자 : 2016년 9월 12일(월)
 선정기준 : 창단 기간, 단원 구성, 연주 횟수, 곡목 수준, 준비정도 등을 근거로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
 참가단체 통보 : 2016년 9월 13일(화) (선정 단체 개별 통지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5. 유의사항

- 반주는 피아노만 사용 가능합니다.(단, 타악기는 사용 가능)
- MR, AR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단체 연주곡목 외 연합합창곡을 연주합니다.
(독도 잠자리-신진수 작곡/선정 단체 악보 배부)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6.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051-607-3146)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회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	20,000원	1매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회원가입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관람권 예매

- 예매 : 전화(607-3100)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회원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골드회원 초대권 2매 증정
-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예술단 5개단체(정기·특별연주회) 중 선택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문화대학, 시민예능교실, 예술·예능아카데미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할인쿠폰 발행

- 공간소극장,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필하모니, 모차르트, 송림정, 카페 빈센트, JUWA Coffe, Gallery&Cafe 가우디, 메가박스(서면점), 엘로인플라워(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대연혁신점), 인경나라(동래점),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새남한의원, 굿윌치과병원, 웰니스병원, 엘리움여성병원, 세흥병원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91
philharmony
필하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윈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community by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 **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THE WEALTHY

꽃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안경나라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CROWN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 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월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달콤한 클래식 강좌
'4인 4색 클래식 산책' 마지막 강좌



이장직과 함께하는 '세계 공연장 순례'

프로그램

9. 21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야외음악당
대표적인 음악 공연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9. 28 콘서트홀, 오페라극장에서 좋은 자리는?
티켓이 비싸다고 다 좋은 자리는 아니다. 공연장에서 좋은 자리 찾는 법~

10. 5 세계의 공연장(1) 오페라 극장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등

10.12 세계의 공연장(2) 콘서트홀과 야외음악당
베를린 필하모니, LA 디즈니홀, 파리 필하모니, 함부르크 필하모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등

- 강사 이장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음악학 박사, 전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총괄연구원. 저서로 <음악회 가려면 정장 입어야 하나요?>
<오페라 보다가 앙코르 외쳐도 되나요?> 등이 있다.

- 신청기간 / 8월 29일(월)~9월 20일(화)
- 수강료 /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강의기간 / 9월 21일(수)~10월 12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016 부산문화회관 예능아카데미



가야금 오은영



해금 윤해승



사물놀이 전학수



클라리넷 이민호



클래식 기타 고충진

2016 예능아카데미 **4기 접수** | 접수기간: 2016. 9. 1(목) ~ 9. 30(금)
개강일: 2016. 10. 4(화)

2016 예능아카데미 시간표

요일	시간	강שמ명	정원	수강료
월요일	19:30	클라리넷 A반	12	100,000원
화요일	16:30	가야금 고급반	12	120,000원
	18:00	가야금 입문반	12	120,000원
	19:30	가야금 초·중급반	12	150,000원
수요일	19:30	클라리넷 B반	12	100,000원
목요일	19:00	사물놀이	12	100,000원
	16:00	해금 입문반	12	100,000원
	19:30	해금 초·중급반	12	100,000원
금요일	14:00	클래식기타 초·중급반	15	100,000원
	16:00	클래식기타 입문반	15	100,000원

* 교육일정과 강שמ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שמ 정원 40% 미달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2016 예능아카데미

수강료: 10만원~15만원 (10회 수업기준, 정기회원 10% 할인)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아카데미 메뉴 (*홈페이지 하단)

결제방법: 카드결제: 전화(607-3155) 또는 방문(사무국 홍보팀)

계좌입금: 부산은행 101-2021-2628-04 문화회관아카데미

문의 051)607-3155

BOF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클래식 饗宴”



지휘 스킷 유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후미아키 미우라



첼로 비온 창



피아노 김다솔

Program

아리랑
라벨 | 치간느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생상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차이코프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라벨 | 볼레로

2016. 10. 12(수) PM 7:30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Program

모차르트 | 플루트 사중주 D장조
하이든 | 피아노 삼중주 제39번 “집시”
브리튼 | 오보에와 현악 삼중주를 위한 판타지
코다이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스트라빈스키 | 병사의 이야기(트리오)
브루흐 | 현악 8중주

바이올린 Scott Yoo, Fumiaki Miura, 이은옥 바이올라 김가영, 이성호
피아노 김다솔 첼로 Bion Tsang, 이일세 베이스 박희철
플루트 Alice Dade 오보에 조정현 클라리넷 장재혁

2016. 10. 14(금) PM 7:30 중극장

티켓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OF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월상하란”

月上賀蘭



출연 중국은천예술극원(銀川藝術劇院)

2016. 10. 15(토) ~ 16(일) PM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bt 부산관광공사

부산문화회관

중국은천예술극원

티켓 R석 1만원 / S석 5천원

공연문의 051) 607-6042 / 607-3151(정기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MUSICA VIVA 무지카 비바

바로크 & TODAY

2016. 10. 4 (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음악감독/협연



바이올린 박경희

협연



소프라노 김현숙



바이올린 우소라



클라리넷 정준하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http://culture.busan.go.kr>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051-607-6066

후원 BNK 부산은행 SK 증권 경동건설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고



다니엘 호프

Daniel Hope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No.1
막스 리히터 "사계" 리콤포즈드



취리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Zürcher Kammerorchester

2016. **10.1** (토)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공연문의 051) 607-6065 / 607-3151(정기회원)



Piano 박종화



Violin 이경선



Cello 안톤 스프론크

박종화, 이경선, A. 스프론크 코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주 드보르작 3중주 & 피아노 5중주

2016. **10.2** (일) **PM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공연문의 051) 607-6042 / 607-3151(정기회원)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중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소재(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